



2026년 부산미술의 힘 보여줄 대형 전시행사 잇따라 개최

제46회 부산미술제 · 제15회 BFAA 국제아트페어 · 제52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제46회 부산미술제

제46회 부산미술제가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벡스코 제2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전체 개막식은 10월 1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부산미술제는 80년의 역사를 이어온 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종합미술 행사로, 지역 작가들의 창작 성과를 한자리에서 조명하고 예술적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는 부산 미술계의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로 46회를 맞는 이번 부산미술제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서예, 학술·평론, 영상·설치·행위,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등 12개의 미술 장르 작품을 선보이며 수준 높은 작품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부산지역작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시대 부산 미술의 흐름과 창작 역량을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출품 대상은 부산미술협회 회원과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은 비회원으로, 출품자로 제출신청은 오는 7월 31일(금)까지 가능하다. 출품 수는 1인 1점으로 제한되며, 각 장르별 정해진 규격에 맞춰 출품해야 한다. 영상·설치·행위미술 분야는 사전 계획서 및 자료 제출 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시 공간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지역 작가들의 창작 의



왼쪽부터 제46회 부산미술제, 제15회 BFAA 국제아트페어, 제52회 부산미술대전 포스터

욕을 고취하고 각기 다른 예술적 시도를 공유하며 부산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장으로서 의미를 더하고자 한다.

제15회 BFAA 국제아트페어

"2026 제15회 BFAA국제아트페어"가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3홀(B·C·D)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BFAA국제아트페어는 국내외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산 대표 미술축제로,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와 국제 문화교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서예, 학술·평론, 영상·설치·행위, 문인



화, 수채화, 민화·불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부산미술협회 회원 및 국내외 미술인 부스전과 함께 부산지역 청년작가 초대전, 국제교류전, 아트마켓, 부산사랑 10가지 순회 시민예술제 전시 및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026 BFAA국제아트페어 참가 신청은 오는 7월 10일(금)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신청서는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주최 측은 이번 아트페어가 부산과 국내외 미술계를 연결하는 문화교류의 장이자, 지역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 미술축제가 될 것이다.



제52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개최되는 '제52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원서교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부산미술대전은 역량 있는 신진 및 중견 작가를 발굴하고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반세기 가 넘는 역사를 거쳐 매년 지역 미술계의 동용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부산미술대전은 국적 제한 없이 접수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출품은 1인 2점 이내로 제한된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서예, 학술·평론, 영상·설치,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등 12개 부문에서 출품 가능하다.

▲ 1차 작품 사진 접수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학술·평론, 영상·설치, 수채화, 민화·불화 부문은 10월 30일(화) 10시부터 17시까지 부산예술회관 4층에서 접수하며, 이전과 달리 접수기간이 1일(하루)로 운영된다. ▲ 2차 작품 접수(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함) △서예, 문인화 8월 3일(월)은 10시부터 17시까지 부산예술회관 4층에서 별도 접수.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학술·평론, 영상·설치, 수채화, 민화·불화 부문은 11월 15일(일) 10시부터 17시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접수한다.

심사는 1차 공개심사와 2차 실물심사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특히 올해 대상은 한국화, 서양화, 판화, 조각, 수채화 부문 통합 1명에게 상금 1,00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되며, 공예, 디자인, 민화·불화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 300만 원, 서예와 문인화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부산은행장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특선, 입선 등 시상이 마련되어 있다.

수상작 전시는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청 2층 전시실에서 분야별 및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전도 개최된다. 개막식은 12월 1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예정이다.

2026 오늘의 작가상 본상·청년작가상 수상기념전

7월27일부터 8월 1일까지, 부산시청 제2·3전시실



제25회 오늘의 작가상·청년작가상 수상기념전이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부산광역시청 제2·3전시실에서 열린다.

매년 금련산갤러리에서 개최되던 수상기념전은 올해 금련산갤러리 소병사실 공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산광역시청 전시실로 장소를 옮겨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목공예와 칠공예 분야에서 오랜 시간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일궈온 김용철 작가의 예술 철학과 창작 여정을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가구와 생활소품 등 3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풍영에서 태어난 김 작가는 어린



전통 속에 민지형 90 x 90 x 30cm
노티나무, 부엌기, 흑단, 칠라목, 자개, 은분, 2017.

시절부터 바다와 자연 속에서 심미적 감수성을 키워왔다. 풍영의 전통 공예문화인 12공방을 접하며 공예가의 꿈을 품게 된 그는 건축과를 거쳐 목공예를 전공하며 본격적인 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목공예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등 실용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공예의 가치를 꾸준히 탐구

해 왔다.

그의 작품세계는 자연에 대한 존중과 쓰임의 미학에서 출발한다. 버려지거나 소멸되어 가는 자연 소재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인간의 삶 속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는 공예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그의 작업 철학이다.

이러한 김용철 작가의 신념을 바탕으로 이번 전시는 목공예와 칠공예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통적인 맛과 이음, 상감, 조각 기법을 활용한 생활 가구와 생활 공예품을 선보인다.

특히 장식적 요소보다 쓰임을 우선하는 공예 본연의 가치를 강조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만난다. 작가의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 쓰임과 아름다움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관람객들은 자연이 품고 있는 생명의 가치와 공예가 지닌 본질적 아름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원숙 작가

한편, 제25회 오늘의 작가상 청년작가상을 수상한 이원숙 작가는 서양화를 전공한 뒤 판화의 조형적 가능성을 확장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이다. 그는 목판화의 전통적 특성을 바탕으로 회화적 마티에르와 부드러운 드로잉 표현을 접목시켜 판화와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초기 작화상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탐구했던 작가는 이후 자연 속 생명력과 에너지에 주목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 치유와 순환의 가치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다.

이 작가는 작업 과정에서 자연을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삼는다. 자연의 생명력과 내면의 감정을 선과 색의 흐름으로 표현하며, 관람자들이 작품 속에서 자신만의 자연과 우주를 발견하길 바란다



No Pain No Peace 평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_162x112cm_woodcut, 2025.

말한다.

또한 판화를 가장 솔직한 표현의 매체로 여기며, 판 위에 새겨진 사유와 행위가 종이 위에 진실하게 옮겨지는 과정에 깊은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청년작가상 수상기념전은 전통적 판화 기법을 바탕으로 차화상에서 인간의 감정, 자연의 생명력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으로 이어져 온 작가의 작업세계를 조명하는 자리이다. 특히 판화와 회화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조형 언어를 모색하는 이 작가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미술협회 창립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1946년 '미술가동맹'으로 출발한 부산미술협회는 지난 80년 동안 부산미술문화의 중심에서 지역 예술의 정체성을 지켜오며 우리나라 미술발전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겨왔습니다.

오랜 시간 예술에 대한 열정과 창작정신으로 협회를 이끌어 오신 모든 미술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0년의 역사는 단순한 시간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대의변화 속에서도 예술의 가치를 지켜온 선배 예술인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향한 변함없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수많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은 부산 미술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부산미술협회는 광복 이후 부산 문화예술의 성장과 함께하며 지역미술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수많은 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미술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계승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오늘의 부산미술협회가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예술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예술은 시대를 기록하고 사람을 연결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미술협회가 걸어온 80년의 여정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역사이자 부산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대학교 또한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거점 사립대학으로서 문화예술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 출신의 많은 미술인들이 부산미술협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오랜 시간 지역

예술계의 한 축을 담당하며 부산 미술의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대학의 큰 자부심입니다.

앞으로도 동아대학교는 부산미술협회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창립 80주년을 지난 역사를 기념하는 뜻깊은 순간인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부산미술협회가 앞으로도 지역미술계를 이끄는 구심점으로서 예술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 창작과 교류의 중심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부산미술협회의 창립 8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창작 활동에 큰 영광과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부산 미술협회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를 품은 예술,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그린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뜻깊은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부산미술협회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출범 이후 부산미술협회는 부산미술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지역 예술문화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시민들의 삶 속에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켜 온 최장막 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산미술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은 더 이상 산업 규모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도시만의 문화와 스토리, 시민의 삶을 담아내는 예술적 자산이 도시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저마다의 문화예술을 통해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듯이, 우리 부산도 문화예술을 미래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이 지난 역할과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 이전과 HMM을 비롯한 글로벌 해운기업들의 집적을 계기로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경제와 해운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해양정책의 중심축이자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해양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양수도는 항만과 물류 인프라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시민들의 삶과 감성이 문화예술이라는 책재로 더해질 때, 비로소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그림도 더욱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문화예술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바다에 있습니다.

항만과 어촌, 산복도로와 피터수도 역사, 그리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른 도시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부산미술은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해양도시만의 정체성과 시대적 가치를 예술로 담아내는 한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부산이 품고 있는 바다와 도시의 이야기가 미래세대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

화 콘텐츠로 발전할 때, 부산미술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도전을 뒷받침할 문화 기반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항 재개발과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등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지금은 부산 문화예술의 역량을 한 단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미술협회는 지난 80년 동안 부산미술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 온 만큼, 앞으로도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성장하는 열린 플랫폼으로서 부산 문화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기대합니다.

바다를 품은 예술이 해양수도 부산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부산이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미술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며, "된다!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는 초긍정적인 행복에너지를 보내드립니다.

2026 제2차 이사회 개최



(사)부산미술협회 2026년도 제2차 이사회가 지난 5월29일 부산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부산미술협회 제2차 이사회가 2026년 5월 29일 오후 6시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4층에서 열렸다.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재직 이사회 임원 65명 가운데 총 43명이 참석하여 심의·의결되었다.

보고사항으로는 △제22회 송해수미술상 결

과보고 △제14회 「부산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OPEN MATCH 청년작가전 진행현황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결과보고 △제35회 부산자랑 10가지 시민예술제 미술사생대회 진행현황 △2026년 갈매랑 축제 진행 현황 △제46회 부산미술제 진행현황 △제15회 BF&A국제아트페어 진행현황 △부산예술지원 매칭펀드(메세나) 선정 결과 △제52회 부산미술대전 진행현황 △2026 kbc 해양미술페스티벌 결과보고가 있었다. 이번 이사회 안건으로는 ▲안건1_부산미술대전 민화·불화부문 분리전 ▲안건2_기부금 운영 규정 신설 건 ▲안건3_제64회 부산예술제 해외자매도시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전 계획안 ▲안건4_전입, 복권, 탈퇴, 제명, 심입회원 인준 심의 건이 다뤄졌다.

기타토의에서는 소식지 배너지 명칭 확인건, 청소년미술캠프 판권 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22회 송해수미술상 수상기념전 개최

이성재 작가, 수상자로 선정



서양화가 이성재

송해수미술상은 부산 화단 1세대 서양화가인 송해수 화백의 정신을 계승하고 화단에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치며 미술문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미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제정된 미술상이다.

제22회 송해수 미술상 심사위원회 김형득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송해수 미술상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신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한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서양화가 이성재 작가

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작가는 자연을 운명적 존재로 받아들이고 이를 필연의 관점으로 확장하여 일상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사유하는 과정을

상형_162.2 × 130.3cm, 캔버스에 유채, 2019. 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제22회 송해수미술상 시상식 및 수상기념전은 9월 8일부터 13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작품을 36
주목한다

대담/글 : 진수아(미술평론과위원)

서양화 유진재



이 계절, 오늘의 시간을 마음으로 따라간다. 연둣빛 앞들이 물드는 하늘, 나무들의 소리와 들꽃 그리고 바람이 살아다 주는 봄의 시간 사이에 있다. 그곳은 가장(機張)에 자리 잡은 작가의 작업실 'Y. HOUSE' (와이 하우스)다. 유진재 작가는 책을 펼치며 작은 글귀를 따라 눈을 맞추고, 햇살은 그림자로 그림을 그린다. 벤치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보자 반갑게 웃는다. 여름은 서서히 그리고 분주하게 나머지를 채워 넣으며 시작될 것 같다.

어린 시절 그림 소년이었다는 작가는 그림이 좋아 그림을 꿈꾸고, 그 꿈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부산 인근의 산이나 여러 지역으로 부지런히 사생(寫生)을 다녔다. 우연한 기회에 여러 겹의 레이어(layer)를 쌓아 완성해 나가는 판화에 감동했다. 특히 동판화 작업의 다양한 무늬, 세밀한 선, 날카로운 맛에 가슴이 뛰었다고 한다. 그때의 느낌이 지금의 〈영원한 관계〉에 스며들어 있다.

유진재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작업하며, 바람에 휘날리는 들꽃에 주목했다. 남의 평가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본인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걸었다. 작가의 방대한 작품세계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인간은 영원히 자연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관계, 자연적인 특성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들꽃을 주인공으로 전경(前景)에 배치하며, 출발점으로 내세운다. 들꽃은 이 우주에서 가장 미미(微微)한 존재로 자연과 문명의 영원한 순환, 시간의 연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에는 산, 나무, 들꽃, 집, 바다, 노을, 숲 같은 자연과 해운대의 발딩 숲, 광안대교, 거대한 선박 같은 인간 문명의 상징들이 있다. 작가는 캔버스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음각과 양각을 새긴다. 바람은 박제된 공간처럼 딱딱하게 보이고, 비활성(非活性)과 활성(活性)의 대비, 즉 휩쓸리지 않는 흔적과 살아 숨 쉬며 비어내는 실체로 대체되고 있다. 재료들은 조개 가루, 염색한 금강사, 돌가루 등을 이용해 강한 질감(texture)의 마티에르(matière)를 드러낸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무한의 시간을 표현하고자 후경(後景)을 지우고 있다. 뒤로 갈수록 색이 멀어지고 흐려지는 색채 원근법(色彩遠近法)을 사용한 듯하지만, 이것은 유진재 작가가 여백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여백(餘白)’은 단순히 비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관람객의 사유가 머물 수 있도록 비워둔 공간이다. 모든 것은 비어 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부드러운 직사각형의 색면(色面)으로 가득한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 마의 회화도 붓이 닿기 전에는 빈 캔버스였고, 거대한 건축물 역시 세워지기 전에는 점유하지 않은 땅이었다. 비어 있기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고, 침묵하고 있기에 더 멀리 울린다. 여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품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기보다 다양한 해석을 열어두며, 빛과 색을 더해 풍경을 만들어 낸다. 레이어드(layered)와 톤(tone)의 흐름 위에 시간과 우주를 연결하는 따뜻한 감성으로 시각화한다. 미세한 자연의 물살들 뒤에 숨 쉬고 있는 우주의 근원적 생명을 형상화한다. 유진재 작가만의 압도하지 않고 품어주듯, 완벽함보다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내면을 따뜻하게 드러낸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은 기억을 과거의 경험들이 축적된 거대한 저장소이며, 우리는 모든 기억을 다 꺼내 사용하지 못한다. 기억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반복적이고 무의식적인 기억이며, 의식 속에 보존된 과거다. 작가는 내 안의 자유를 어릴 적 기억의 흔적에서 찾는다. 작품 ‘오래된 기억’은 가옥, 창문, 벽 등



Everlasting Relationship_33.4 x 19.0cm, Mixed media, 260210.



Everlasting Relationship_72.7 x 50.0cm, Mixed media, 240806.

을 선택하여 기억으로 그려내고 있다. 텅 빈 듯 보이는 나무의 줄기 안에도 수많은 겹쳐진 시간이 서 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줄이 있다. 그러나 생(生)을 지키기 위해 생겨진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작가만이 가진 무늬이다. 중요한 것은 기억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을 품은 호흡의 결이다. 지금도 들꽃은 조용히 사유하는 작업으로 남아있다.

들꽃은 예술적 도구들과 나눈 격전의 산물이다. 예술은 세계를 어떻게 느끼며 견디며 것인가를 묻는 것이기에 깊이가 다르다. 그러기에 예술은 설득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명령하지도 않는다. 대신 보여주면서 웃고, 울리며, 가슴을 흔든다. 예술이 살아있는 사회는 해결책을 주지는 못해도, 견딜 힘을 주기 때문이다.

예술은 그 자체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 예술가는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쏘아 올리는 선동가가 아니라, 자신의 작업실에서 작업 도구와 치열한 대화를 나누는 ‘장인(匠人)’이다. 예술은 ‘해변을 걷다 때려 있는 섬’이라며, 법칙과 논리가 존재하는 ‘독립된 세계’라는 뜻이다. 창작자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는 늘 작업을 하면서 경계선을 알아야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한다. 관찰을 통해 지식을 얻고, 지식을 다시 확실하게 그림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질을 부여받은 최고의 화가, 유진재 작가가 그렇다.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숲의 숨결과 흙의 온기를 그리워한다. 우리가 자연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연이 곧 인

간의 원형이자, 돌아가야 할 ‘거울’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였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지속적으로 변화해 간다. 시간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는데, 바로 순환성(循環性)이다. 세월이 흘러도 봄이 되면 야깁깁이 벚꽃이 피고, 연말이 찾아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장식 트리(tree)가 등장하며 새해를 꿈꾼다. 매년 같은 날에 생일케이크를 먹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일상은 원을 그리듯 반복된다. 이 순환성은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하는 호흡이다.

매일 아침을 ‘풀잎’으로 시작한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 한쪽으로 밀려나 있는 존재처럼 보여도, 삶의 궤도를 이끄는 수레였음을 작가는 안다. 부는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들꽃과 들꽃에서 인생을 배운다. 풀꽃 사이로 걷는 길은 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따뜻한 마음이 번지고 그리움이 흐르는 길이다. 어린 시절 외갓집에 가는 길과 닮아있다.

- 충무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 졸업
- 가인전 20회
- 제25회 동생문화상, 오늘의 작가상 본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MBC 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 입선
- 부산예술대학교 교수, 홍익대학교, 서원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성기독교대학교 강사 역임, 부산비엔날레미사 및 운영위원, 감사, 각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초대작가, 대한민국미술협회, 새부산미술협회, 허동인, 두대아티스트 회원
- 작품소장: 협성대나 G7, 부산롯데호텔, 부산서부지방검찰청, 부산국제금융센터, 주농심호텔, 외교통상부(비엔나)한국 대사관, 동아대학교병원, 부산은행, 영암미술관 등



Everlasting relationship_130 x 65cm, Mixed media, 251026.



Everlasting Relationship_162.2 X97.0cm, Mixed media, 160428.



Everlasting Relationship_259.1 X162.1cm, Mixed media, 210513.

자연의 목소리로 문명을 성찰하다

반복성과 함축성,
그리고 한국적 미감이
집약된 절제의 회화



35년간 한국 목판화의 길을 걸어온 홍익중 작가가 개인전 '하늘·바다·나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묻는다. 이번 전시는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중구 갤러리 이바나인에서, 이어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의 부제인 '하늘·바다·나무'는 작가가 오랫동안 천착해 온 자연의 상징을 집약한다. 푸른 소나무와 하늘, 바다는 각각 인간의 삶과 미래, 희망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자연의 목소리로 인간 사회를 성찰하는 '비유적 초자연주의' 세계를 선보인다.

홍 작가는 한국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중심 소재로 삼아 공동체와 인간 정신을 탐구해 왔으며, 이후 자연의 시선으로 인간 문명을 바라보는 작업으로 확장해 왔다. 최근 연작에서는 자연을 소유와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부산 개인전 기준 20여 점, 서울 전시에서는 3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대표작인 〈New Another Nature〉와 〈Forest District〉를 비롯해 최근 작업의 핵심인 구름 시리즈가 함께 전시된다. 이



New another nature _115 × 115cm, woodcut, 2026.

번 작품들은 기존 목판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작나무 합판과 배나어판을 활용한 대형 다색 목판화로 제작되었으며, 전통 한지인 장지와 캔버스 위에 직접 인쇄하고 채색하는 독창적인 기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색채를 절제하고 화면의 정서적 조화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시각적 화려함보다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며, 목판화가 가진 반복성과 함축성, 그리고 한국적 미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전통 목판화의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과 표현성을 결합한 그는 이러한 작업 방식을 '판법회화'라고 명명한다. 일반적인 프레스 인쇄방식 대신 수작업으로 완성한 대형 목판화는 회화와 판화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조형언어를 제시한다.

정지된 화폭을 넘어 확장된 예술

재단과 재봉으로 이어진
확장된 예술실험
아트백 프로젝트 선보여



조기아 최은송

창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온 최은송 작가가 오는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개인전 '최은송 가방쇼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직접 제작한 에코백, 토트백, 크로스백, 누룽가방, 소형 손가방 등 약 15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회화와 공예, 생활성과 예술을 결합한 독창적인 작업을 선보인다.

최 작가는 38세에 현대미술과 전위예술에 깊은 흥미를 느끼며 독학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1993년 예술의전당 개관기념전 'The Seoul of Fluxus'를 관람하며 받은 충격과 감동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첫 개인전 '조각개념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는 관람한 큐레이터의 제안으로 국립극장에서 열린 '극장을 찾는 사람들' 조각전 초대로 이어지며 작가 활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최 작가에게 이번 전시는 어린 시절 꿈꾸었던 패션디자이너의 감각을 예술적으로 풀어낸 자라이기도 하다. 그는 2000년 가나아트 기획 '가방전' 단체전에 참여한 경험을 계기로



남만의콘드 southern sun _행위예술_해운대 모리두, 2008.

자신만의 가방 전시를 구상해왔다고 말한다. 천을 고르고 그림을 그리고 재단과 재봉을 반복하는 과정은 하나의 패션쇼를 준비하는 감각과도 같았다.

이번 전시는 기존 설치·조각 작업과는 다른 형태지만, 작가의 예술실험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일한다. 그는 먼 옥스포드 천, 캔버스 천, 폴리에스터 원단 등에 직접 추상적 드로잉과 회화를 그려 넣고 재단과 재봉까지 직접 수행해 하나의 가방 작품을 완성한다.

쉽지 않은 작업 과정에 대해 그는 "하루 종일 미싱질을 하다 보면 내가 미술을 하는 건지 재봉사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이야기한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방 형태를 중심으로 제작된 이번 작업은 '들고 다니는 미술'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실생활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게 하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확장된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

시간과 감정을 따라 이어온 회화의 여정

유화와 아크릴로 풀어낸
자연과 가족,
그리고 삶의 색채



서양화가 최향주 작가의 개인전 '여정(Journey)'이 7월 7일부터 12일까지 금련산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최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 공간에 펼쳐 보이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다시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재료와 표현 방식에 따른 서로 다른 회화적 감각을 담은 약 4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유화 특유의 색감과 강한 터치, 작품부터, 아크릴 재료를 활용한 간결하고 모던한 화면 구성의 작품들을 함께 선보인다.

최 작가는 기존 유화 작업에서 보여주었던 화려한 색채와 질감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보다 절제된 화면과 조형 언어를 통해 새로운 감각을 탐색하고 있다. 특히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색의 밀도와 분위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서로 다른 감정의 흐름을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전시의 중심에는 자연과 가족, 그리고 삶의 시간 속에서 축적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동행〉은 얼룩말과 보타니컬 이미지를 활용해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가족애와 따뜻한 정서를 담아냈다.

최 작가는 "나의 작품 속 색은 아이디어 그 자체이자 내면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요소이며 회로에러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회화는 나의 시간과 감정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회화에는 정답이 없다는 믿음 속에서 자유로운 재료 선택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지나온 작업을 정리하는 자리를 넘어,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앞으로의 작업 세계를 이야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작가는 "이번 전시가 결과물에 대한 집착보다 사유의 과정이 되길 바란다"며 "동시대성과 보편성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작가로 남고 싶다"고 전했다.



동행 _60호 M, Acrylic on canvas.

자연 속 생명과 시간의 풍경을 담다

시간이 머무는 풍경을
한지와 유채로 풀어낸
자연과 인간의 서정



서양화가 강현

풍경화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야기해 온 강현 작가가 개인전 '자연 속의 생명'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 부산 갤러리에서, 이어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부산 갤러리 이바나인에서 진행되며, 30여 점 이상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탐구해 온 섬과 해변 풍경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강 작가는 자연 속 생명과 시간성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풍경 재현을 넘어 인간 존재와 삶의 본질을 회화적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섬이라는 공간은 고립과 생존,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동시에 상징하는 장소로, 작가에게 있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왔다.

강 작가는 한지 위에 유채를 사용하는 기법의 혼합과 함께 독특한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동양적 재료인 한지와 서양적 재료인 유채의 결합은 서로 다른 감각과 문화

의 융합을 의미한다. 그는 실제 풍경의 형태를 충실히 이해하면서도 회화적으로 변환하여 표현하고 감정의 색으로 확장하며 자신만의 풍경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화면 속 여백과 시간성이 더욱 강조된다. 비어 있는 공간은 시간과 감정이 머무는 장소이자 기억과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여백으로 남겨진다. 작가는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축적된 장소를 바라보는 느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작업의 중심에는 자연이 지닌 생명력에 대한 깊은 시선이 놓여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는 섬과 해변의 풍경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그는 자연 속 강인한 생명력을 통해 우리에게 작은 위안과 힘을 전하고자 한다.

강 작가는 "사람은 번다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라며 "나의 그림 역시 어렵기보다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담아볼 수 있는 풍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원의 바다 _145.0 × 66.8cm, 한지에 유채.

부산미술 단체를 찾아서

37

「금빛사상미술협회」 Since 2018

산업과 생태의 풍경 위에 예술의 숨결을 더하다



금빛 물결전 통합과 회원의 이야기에서 촬영한 금빛사상미술협회 단체사진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교류전과 미술체험행사를 선보인 2021년도 금빛사상미술협회 정기전.

금빛사상미술협회는 2018년 서부산 미술 문화의 발전을 위해 42명의 창립 멤버를 중심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부산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주로 동부산을 중심으로 원도상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사상을 비롯한 서부산 지역은 풍부한 역사적·생태적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술적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지역 미술인들이 자생적인 연대를 통해 '사상'을 중심으로 한 서부산만의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현대미술 담론과 문화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시각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장르의 미술인들이 상생하는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금빛사상'의 철학적 의미는 차별 없는 개방성과 이타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람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태워 모든 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과 같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을 지향하며,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개방성을 모토로 한다. 농경사회의 중심이었던 김해 지방과 현대 산업사회의 중심인 사상공단에 이르기까지, 사상은 문명의 발생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또한 상류의 부유물이 만든 비옥한 삼각주와 따뜻한 해양성 기후가 아우러진 낙동강 하구의 자연성과 역사성을 함께 품고 있다.

금빛사상미술협회는 초대 배기현 회장, 2대 창종민 회장의 헌신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틀을 다졌으며 현재는 80명의 중견 및 신진 작가들이 포진한 서부산의 대표적인 중추 미술단체로 성장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매년 협회의 역량을 집약하여 선보이는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본 협회의 기획전인 '금빛 물결전'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기획전 '금빛 물결전'은 서양화의 현대적 표현과 문인화·민화의 전통적 서사, 도자기의 입체적 미학이 '금빛'이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융합되는 예술의 장이다. 사상이라는 거친 산업적 캔버스 위에 예술이라는 부드러운 숨결을 불어넣어, 장르 간 장벽을 허물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협회의 포용적 방향성을 증명해 온 프로그램이다.

현재 금빛사상미술협회의 임원은 박정숙 회장을 주축으로 자문위원 배기현·창종민, 부회장 김영희·김혜연, 감사 최영수·류재환,

사무국장 최영아, 재정총무 장미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으로는 권의경, 김명분, 김한주, 박선민, 박진용, 유경렬, 유상선, 윤순호, 장갑숙, 장문자, 정권채, 정유경, 최노아, 최성화, 강미령, 공민지, 김경, 김경순, 김남영, 김덕곤, 김명란, 김명애가 있다. 금빛사상미술협회는 임원진과 운영위원회의 체계적인 분업, 그리고 회화와 전통 공예 작가들이 서로의 장르를 존중하며 협업하는 '개방적 네트워크'가 정착된 점은 가장 큰 성과를 이뤘다.

함께 활동 중인 회원으로는 김문정, 김삼용, 김선아, 김소진, 김순복, 김영숙, 김운라, 김창숙, 김철호, 김한주, 민경자, 박경철, 박미경, 박선미, 박용우, 박혜마, 서선아, 설광룡, 송낙웅, 신지연, 신지영, 안태준, 오수희, 우윤희, 우은희, 유미선, 윤영철, 윤희배, 이소영, 이영숙, 이은주, 이은주(향파), 이향화, 임연희, 임이정, 정영미, 조용문, 최시복, 최영근, 최장락, 하훈수, 한경애, 한혜경, 황외성, 김진희, 성봉애, 이미영, 청소년, 정혜인, 한애자 회원이 있다.

회원들은 현대와 전통, 평면과 입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주 장르는 동시대적 감각을 보여주는 '회화'의 해학과 염원을 담은 '민화', 흙과 불의 생명력을 빛내는 '도자기(공예)', 그리고 깊이 있는 묵향과 필력을 선보이는 '한국화(문인화)' 등이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다.

금빛사상미술협회 박정숙 회장은 "본 협회의 가장 큰 지향점은 서부산만의 고유한 현대미술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회원들이 마주하는 사상의 풍경은 산업화의 흔적과 자연 생태가 공존하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문화는 서양화의 동시대적 감각, 문인화와 민화가 지닌 전통의 서사, 그리고 도자기가 가진 흙의 생명력을 한자리에 모으는 전사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내년은 본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이에 발맞춰 향후 내부 활동의 핵심 방향성을 '내실을 통한 대외적 도약'으로 설정하고 있다. 10주년 정기전은 지난 10년간 서부산과 사상 미술의 비평목이 되어온 회원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발돋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서로 다른 장르가 사상이라는 거점에서 어떻게 융합하고 성장해 왔는지 그 청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매년 아이온 기획전을 서울과 부산의 주요 갤러리 무대를 넓혀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지역에 머무는 협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술의 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을 잇는 거점으로서 우리 협회의 정체성과 역량을 보다 선명하게 확장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컬렉터 집중분석

- 서른 세 번째 이야기

김상현
학술전문문화비평가

이 코너에서는 미술품의 작품 컨셉 연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비평으로, 미술사에 남게 된 위대한 예술가들의 개념과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소개되는 이러한 자료들을 필자와 함께 공부하는 컬렉터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몸을 잊고, 충명을 버리고, 형체를 떠나 대통(大通)에 들어간다."

- 「장자」 「대종사」, 좌망(坐忘) 중에서 -



안토니 곰리



「장자」 안토니 곰리, Another Place, 주철 100개, 2005 ~2006, 영국 머지사이드 크로스비 해변



장자와 현대미술 1 - 경계와 장(場)의 미학, 좌망(坐忘)

「장자」의 「대종사」에서 등장하는 좌망(坐忘)은 장자 철학이 도달하는 가장 깊은 지점이다. 안희는 공자에게 말한다. "몸을 잊고, 충명을 버리고, 형체를 떠나 대통에 들어갑니다." 흔히들 좌망을 단순히 자아를 잊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좌망은 망각이 아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더 큰 세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다. '나'라는 경계가 느슨해지는 순간이다. 개체가 세계를 바라보는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하나의 흐름으로 만나는 상태. 어쩌면 장자가 말한 좌망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좌망의 끝에서 장자는 대통(大通)을 이야기한다. 대통은 거대한 연결의 상태다.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흐름 속에 함께 존재하는 상태. 그래서 장자에게 자유는 독립이 아니다. 오히려 연결이다. 천지와 더불어 노는 일이다. 이 지점에서 장자는 뜻밖에도 현대미술과 만난다.

우리는 왜 예술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형상을 만드는가. 동굴벽화에서 그리스 조각, 르네상스 회화, 현대 조각에 이르기까지 예술은 인간을 반복해서 재현해 왔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위대한 예술이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다. 예술은 인간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그리고 현대 조각가 안토니 곰리(Anthony Gormley)는 그 질문을 가장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간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세계 최정상 갤러리인 화이트 큐브의 대표 작가 안토니 곰리는, 평생 인간의 몸을 작업해 온 작가이다. 그러나 그의 조각은 인간의 외형을 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몸을 통해 존재를 묻는다. 그는 몸을 하나의 장소(place)로 이해했고, 더 나아가 하나의 장(field)으로 이해했다. 몸은 피부 안에 갇힌 덩어리가 아니다. 몸은 공기와 만나고, 빛과 만나며, 중력과 관계하고, 타

인과 연결된다. 따라서 인간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수많은 관계가 교차하는 하나의 장이 된다. 이러한 관점은 장자의 철학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장자에게 인간은 완결된 실체가 아니다. 천지의 기(氣)가 잠시 모여 형체를 이룬 존재이며, 다시 흩어지는 흐름의 일부다.

곰리의 대표작 'Another Place'에서 인간 형상들은 바다를 향해 서 있다. 밀물이 오면 잠기고 썰물이 오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조각 자체가 아니다. 조각과 공간, 몸과 환경, 존재와 세계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다. 곰리는 인간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안토니 곰리의 조각 앞에 서면 우리는 인간을 본다. 그러나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인간은 사라진다. 대신 몸과 공간, 존재와 세계, 나와 우주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장(場)이 나타난다. 장자는 그것을 '천지와 더불어 노는 것'이라고 불렀고, 곰리는 그것을 'Field'라고 불렀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들이 바라본 방향은 어쩌면 같은 곳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의 형상인가. 아니면 형상 너머의 관계인가. 어쩌면 예술의 역할은 새로운 대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경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넘어 더 넓은 세계와 만난다.

필자가 컬렉터들과 동양 철학의 텍스트와 현대미술의 최전선을 교차하며 연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예술을 소유나 감상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의 연대 속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작품의 진정한 가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미학 회원들의 창작 현장 역시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고독한 노동을 넘어, 장자의 좌망처럼 자신을 비워내고 세계와 연결되는 거대한 장(場)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미학적 화두가 창작자와 소장자 모두에게 안목의 지평을 넓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어질 〈장자와 현대미술〉 칼럼들을 통해 그 철학적 연대의 여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불협 속에서 함께 울리는 집단적 공명 2026 부산비엔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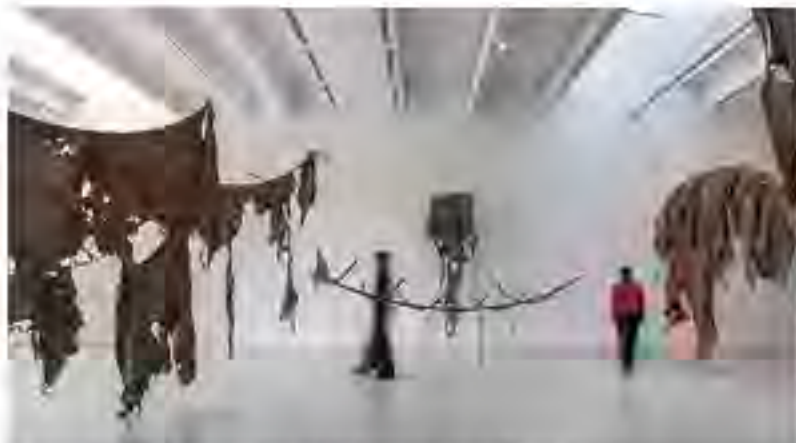
서로 다른 목소리와 리듬이
말들어내는 집단적 울림 속
도시와 바다, 기억과 미래를
세 개의 막장

2026부산비엔날레가 〈불협하는 합창(Dissent Chorus)〉을 주제로 참여작가 23개국 44개 팀(작가 47명)과 주요 전시 구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 주제와 참여작가, 전시장소를 발표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오는 8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65일간 부산현대미술관, 영도 스페이스 원지, (구)부산남고등학교 등 부산을 대표하는 세 공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일정을 조율 중인 팀이 7곳 정도 있어 참여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6부산비엔날레는 '합의와 조화'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목소리와 경험, 기억이 공존하는 사회를 예술적으로 탐구한다. 전시 제목인 〈불협하는 합창〉은 서로 다른 음과 리듬이 충돌하면서도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합창의 구조를 차용한 개념이다. 이는 오늘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정체성이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연대와 공명의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세 개의 전시장 자체를 하나의 음악적 구조로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1악장에 해당하는 부산현대미술관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생태적 경계에서 인간과 자연, 동물과 재생의 문제를 다룬다. 2악장인 영도 스페이스 원지는 항만



2026부산비엔날레 참여작가인 조타 문바사와 대륙학을 이미지.



부산비엔날레 2026 Busan Biennale 카타로그

도시 부산의 역사성과 바다를 둘러싼 노동, 이동, 저항의 기억을 호출하며, 수증 세계에 대한 상상력까지 확장한다. 3악장인 (구)부산남고등학교는 올해 초 비워진 공간을 활용해 교육과 배움, 미래 세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리허설의 장으로 재구성된다. 서로 다른 장소성과 서사를 가진 세 공간은 하나의 자대한 의보처럼 연결되며 부산 전역에 집단적 울림을 형성하게 된다.

이번 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사운드와 음악, 퍼포먼스 등 집합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 참여작가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기

존 비엔날레가 시각 중심의 감상 경험에 상대적으로 집중했다면,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소리와 몸의 움직임, 현장성을 직접 경험하도록 구성된다. 라이브 퍼포먼스와 클럽 문화, 공동체적 라들과 신체의 감각이 전시의 주요 언어로 활용되며, 미술과 음악, 안무, 사회적 실천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참여 작가로는 필리핀 태생으로 현재 브뤼셀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2024년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 국제적 주목을 받은 조슈아 세라핀(Joshua Serafin)이 있다. 춤과 퍼포먼스, 안무를 통해 우주론, 정체성과 이주, 퀴어 정치학과 몸의 존재 방식을 탐구해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카날-몽페두 센터와 공동 제작하는 신작을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인다.

역사와 신화, 젠더의 문제를 탐구해온 인도네시아의 나타샤 톨레이(Natasha Toleay), 사진과 영화, 설치 작업을 통해 정치와 사회를 연구하는 프랑스의 에릭 보들레르(Eric Boudelair)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박현성을 비롯해 강서경, 김성은, 류성일, 임민욱, 전소정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2026부산비엔날레 전시장소 스페이스 원지.

활동하는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동시대 예술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줄 예정이다.

지역 미술계의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이 전시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이다. 항구도시 부산이 지닌 역사적 경험과 이동, 이주, 노동, 공동체의 기억은 이번 비엔날레의 중요한 서사적 기반이 된다. 영도를 중심으로 한 전시 공간 구성 역시 부산만이 가진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대 예술의 언어로 해석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2026 부산비엔날레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머물며 경험하는 예술 축제를 지향한다. 조직위원회는 향후 최종 참여작가 명단 발표와 함께 퍼포먼스 프로그램, 사운드 프로젝트, 아티스트 토크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전시장 안팎에서 펼쳐질 라이브 음악과 퍼포먼스는 부산비엔날레를 보다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예술 플랫폼으로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비엔날레는 지난 수십 년간 국내를 대표하는 국제미술행사로 성

장하며 아시아와 세계현대미술의 흐름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공동 전시감독인 에블린 사이먼스와 아말 칼라프는 "이번 비엔날레가 관람객들이 잠시 속도를 늦추고 함께 머물며 서로의 존재를 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각 중심의 감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소리와 몸의 감각, 지적인 경험에 귀 기울이는 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세계는 갈등과 분열,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26부산비엔날레는 예술이 사회와 관계 맺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실험의 장이자, 부산이 지닌 문화적 가능성을 세계와 공유하는 국제예술축제가 될 전망이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교차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집단적 울림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불협처럼 들리는 차이들이 결국 하나의 합창으로 이어질 때, 예술은 가장 깊은 공감과 연대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이번 부산비엔날레가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자랑 10가지 미술사생대회 개최



지난 5월 30일 부산시민공원 다습광장에서 2026 부산 자랑 10가지 미술사생대회가 열렸다.

부산일보사, 부산경남대표방송KNN이 후원하는 '제35회 부산자랑 10가지 순회시민예술제' 미술사생대회가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산시민공원내 다습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부산을 대표하는 10가지 지역 명소주제를 중심으로, 참가부문은 크레파스화, 수채화, 한국화, 파스텔화, 서예, 이미지디자인, 소묘로 운영되었다. 지난 5월 11일부터 28일까지 사전접수와 당일 현장접수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청소년 총 344명이 접수해 참가 열기가 고조되며 대회 분위기가 한층 더 달아올랐다. 수상작 전시 및 시상식은 10월 17일 오전 11시 부산백스코 제2전시장 4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며, 부산자랑 10가지 순회시민예술제 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용두산공원 미술의거리 '아트마켓_용' 개최



용두산공원 미술의거리 '아트마켓_용' 리플렛 표지.

자인 분야의 다양한 아트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작가와 관람객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손그림 도자기 만들기, 돌에 그림 그리기와 편지통 만들기, 나만의 카팅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이처럼 생활 속 예술 향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아트마켓_용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한편,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용두산 무더위 대파전이' 예정되어 있다.

용두산공원 미술의거리 입주작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플랫폼 '아트마켓_용'이 매월 넷째 주 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용두산공원 벚천폭포 앞 미술의거리에서 진행된다.

용두산공원 미술의거리는 작업실과 전시공간을 갖춘 열린 예술공간으로, 시민과 관람객들이 생활 속에서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아트마켓_용'에서는 입주작가들이 직접 제작한 회화, 공예,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아트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작가와 관람객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손그림 도자기 만들기, 돌에 그림 그리기와 편지통 만들기, 나만의 카팅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이처럼 생활 속 예술 향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아트마켓_용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한편,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용두산 무더위 대파전이' 예정되어 있다.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예술회관 3층 전시실에서 열린 시상식.

지난 5월 18일 오후 5시 30분 부산예술회관 3층 전시실에서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 전시 및 시상식이 열렸다. 부산지역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고, 예술활동을 통한 정서 순화와 창의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됐다. 올해는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해 수채화, 한국화, 파스텔화, 민화, 서예, 문인화, 민화, 이미지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총 240점을 출품했으며, 자유로운 주제 표현을 통해 청소년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엿볼 수 있었다.

시상식에 앞서 5월 8일 부산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심사를 통해 총 100명의 입상자가 선정됐다. 부산시상상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2학년 김소민 학생이, 부산시교육감상은 부산예술고등학교 장광호 학생과 부산예술중학교 박정린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6 KOBC 해양미술페스티벌 성료

전시·체험·공모전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해양문화 예술축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25일간
성황리에 개최되다

해양의 푸른 심장! 아트로 호흡하다展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최하고 (사)부산미술협회가 주관하며 국립해양박물관이 후원한 '2026 KOBC 해양미술페스티벌'이 지난 5월 1일부터 25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전시 기간 동안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 '해양의 푸른 심장! 아트로 호흡하다' 기획전이 진행되었으며, 부산미술협회 작가 100여명의 전시가 각각 1부와 2부에 나누어 진행되었다. 한편, 5월 2일부터 5일까지는 2층 야외광장과 1층 일원에서 청소년·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양의 푸른 심장! 아트로 호흡하다'의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바다의 생명력과 생태적 순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예술로 풀어내고자 기획되었다. 부산미술협회 소속 작가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2부는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회화 작품뿐 아니라 입체작품까지 함께 선보여 보다 풍성하고 새로운 감상 경험을 제공했다.

참여 작가들은 해양 생태계와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각적 해석을 작품에 담아냈다. 푸른 바다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순환, 해양오염과 생태 보전의 중요성 등을 회화와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하며 예술이 전하는 환경 메시지의 의미를 확장시켰다. 특히 올해는 입체작품이 함께 전시되면서 관람객들이 보다 입체적이고 몰입감 있는 방식으로 해양의 가치와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일 열린 개막식에는 많은 내빈과 참여 작가, 시민들이 참석해 전시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으며, 전시 기간 동안 40,319명의 많은 관람객들이 국립해양박물관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며 해양 환경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문 작가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운영되며 예술과 환경교육이 결합된 체험형 문화행사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첫 개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KOBC 해양미술페스티벌은 예술을 통해 해양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대표 해양문화예술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품 감상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되었으며, 부산의 해양문화 정체성을 예술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시와 체험행사를 통해 해양의 가치와 환경



5월 2일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앞에서 진행된 2026 KOBC 해양미술페스티벌 개막식 현장사진.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해양의 푸른 심장! 아트로 호흡하다展' 1부 전경 사진



국립해양박물관 특별전시실에 전시된 '어린이 해양환경 미술 공모전' 수상작

보전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2026 KOBC 해양미술페스티벌'은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해양과 예술의 접점을 확장한 대표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다.

〈청소년·어린이 체험부스展〉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산미술협회 전문작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미술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체험부스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하는 동시에 해양 환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공예분과의 '바다를 기억하는 해양 문화체험'은 바다에서 온 소재인 자개를 활용해 자개의 빛과 결을 살린 바다 이미지를 그려 형상에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어린이들은 전통 공예 기법을 체험하며 바다와 생태 보호의 중요성을 높이고 공예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으며, 완성된 작품은 일상 속에서 바다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이 되었다.

서양화분과의 '내가 그리는 바다-스퀴지 아트'는 원하는 색상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표현하는 스퀴지 아트 기법을 소개하고 다양한 색채 실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정형화된 표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바다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예술적 상상력과 개성을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화·서예·문인화분과의 부채그리기 체험과 판화분과의 '해양미술 소장 프로젝트-작품을 입히는 우리 전통 공예품인 부채에 해양 동물과 식물의 모습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동시에 해양 친

화적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광장에서는 상시 운영 프로그램으로 참여형 공동 아트월 제작이 진행되었다. 컬러펜을 활용한 자유로운 그래픽 표현은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나의 대형 작품으로 연결하며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행사 전체를 상징하는 다채로운 비주얼 콘텐츠를 만들어냈다. 또한 설치미술 '배 위에서 자라는 상상' 해양 청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번 체험부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부모들이 전문 작가진과 함께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양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과 환경 교육을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의미있게 마무리되었다.

〈어린이 해양환경 미술 공모展〉

5월 1일부터 25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부산 지역 유치부 및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어린이 해양환경 미술 공모전' 수상작 전시가 열렸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최하고 (사)부산미술협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해양의 소중함과 미래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예술로 표현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공모전에는 해양과 바다의 소중함, 해양환경 보호, 미래의 바다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작품들이 출품되었으며, 어린이들은 크레파스화, 수채화, 파스텔화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자신만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작품에 담아냈다. 작품들은 바다를 향한 애정과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진솔하게 표현해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전했다.

특히 선정된 작품들은 국립해양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진행된 이정은 작가의 설치작품과 함께 전시되어 많은 관람객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어린이들의 참신한 발상과 풍부한 표현력은 해양환경 보전의 가치를 일깨우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전시를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아이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은 5월 2일 오전 11시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앞에서 진행되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었으며, 수상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기념품과 격려의 시간을 제공했다.

이번 '어린이 해양환경 미술 공모전'은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 전시와 시상식,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많은 시민과 가족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되었으며, 예술을 통한 해양환경 인식 확산과 미래세대 교육의 가치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야외광장에서 열린 청소년, 어린이 체험부스전.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앞에서 진행된 '어린이 해양환경 미술 공모전' 수상자 단체사진



국립해양박물관 1층 야외광장에서 열린 해양 미술쇼.



국립해양박물관 특별전시실에 전시된 이정은 작가의 설치작품과 함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미술칼럼

부산미술협회 80년, 기록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백서가 되어야 한다

2026년, 부산미술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했다. 8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열정과 실험, 좌절과 성취, 그리고 부산미술이 걸어온 치열한 역사가 담겨 있다. 부산미술협회의 역사는 곧 부산미술의 역사이며, 부산이라는 도시가 축적해 온 예술적 기억의 한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절에서 부산미술협회 80주년 백서를 제작하는 일은 매우 뜻깊은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백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흔히 백서를 연혁과 사업 실적을 정리하는 기록물로 생각한다. 역대 임원명단을 정리하고, 주요 사업과 전시를 정리하며, 사진과 자료를 모아 과거를 기록하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미술의 흐름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부산미술협회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일은 후대에 남겨야 할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백서가 과거의 성과를 정리하고 나열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기록집일 수는 있어도 미래를 위한 백서는 될 수 없다. 백서(White Paper)의 본래 의미는 공공적 책임 아래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식 문서이다. 다시 말해 백서는 과거를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문서여야 한다. 기록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나온 시간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번 백서는 부산미술이 무엇을 해왔는가를 기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산미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지금 부산미술은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국제영화제와 바캉날대를 품고 있는 문화도시이다. 그러나 정작 많은 청년 작가들은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서울로 향하고 있다. 창작 공간의 부족, 제한된 시장 규모, 부족한 전시 기회, 불안정한 생계 문제는 여전히 많은 예술가들의 현실이 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미술시장의 변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또한 새로운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부산은 과연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시인가.

부산시는 예술가들의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청년 작가들은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부산미술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구조적 과제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이번 백서 속에 담겨야 한다. 그래서 이번 백서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부산미술의 역사와 부산미술협회의 성과를 기



부산미술협회 80주년 기념전 '1946년~1969년 3·1절 기념 미술전에 참여하신 작고 작가 전시장 사진.'

록하는 일이다. 부산미술의 근·현대 흐름과 협회의 주요 사업, 부산미술대전과 부산미술제, 그리고 각 분과가 축적해 온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또 하나의 축은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부산미술의 미래를 위한 구조적 제안이다.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일이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 존재할 때 비로소 백서는 완성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부산미술인들의 목소리다. 협회 임원 몇 사람의 의견이나 일부 전문가의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작업실에서 창작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들, 생계를 걱정하면서도 작품 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 예술가들,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 온 중견·원로 작가들의 경험과 생각이 담겨야 한다.

이번에 추진해야 하는 부산미술인 설문조사는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니다. 그것은 무

산미술인의 집단적 무의식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창작 환경, 경제적 어려움, 전시 기회, 협회의 역할, 정책에 대한 평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부산미술협회는 부산미술인의 만행과 같은 존재다. 만행의 역할은 앞서 걸어온 길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다. 다음 세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창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 있다. 청년 작가들이 부산에서도 충분히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지역 예술가들이 존중받으며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0주년 백서는 부산미술의 과거를 정리하는 마지막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의 80년을 준비하는 첫 번째 문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백서를 통해 단순히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함께 묻고 답해야 한다.

부산미술의 미래는 몇몇 사람의 생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부산미술인 모두의 경험과 목소리, 그리고 공동의 상상력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번 백서가 그러한 집단적 사유와 참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부산미술의 새로운 80년을 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부산미술 편집위원회)

Close Up 39

레트로 감성과 만화적 상상력을 더하다



청년작가 최지혜

현대 미술은 대중 매체의 발달과 그에 따른 미술 영역의 확장으로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컴퓨터 아트란 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예술은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현대 미술의 난해함과 대중과의 소통에 대한 괴리는 또 다른 행태로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예술이 점차 특정 영역 안에서만 소비되는 현실은 현대 미술이 안고 있는 또 다른 과제이기도 하다.

최 작가의 작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예술이 대중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품을 마주한 관객이 어렵게



비틀즈 패러디 _72.7x53cm _캔버스, 슬립캐스팅, 핸드유, 1250도 산화소성, 2017. (왼쪽) Retro Series _70x40x55cm _비디오형도, 색안료, 촉유, 투명유, 1250도 산화소성, 2018. (오른쪽 위) 사실은 나도... 소녀감성 _55x18x70cm _조형도, 조형물 색안료, 투명유, 1250도 산화소성, 2023.

해석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소통으로 이어진다.

작가에게 소통(疏通, Communication)이란, 인간관계에 있어 상호적인 작용을 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의 작업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대중문화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레트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락지, 음악과 같은 친숙한



문화적 경험들은 작업에 중요한 소재가 된다. 최 작가는 관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미지와 기억을 활용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한다.

초기 작업인 <비틀즈 패러디>는 이러한 작가의 관심사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비틀즈의 앨범 자켓 이미지를 도자기와 회화적 요소로 재구성한 이 작품은 평면과 입체가 공존하는 독특

한 형식을 보여준다. 펜 드로잉에서 출발한 만화적 패턴과 슬립캐스팅 기법으로 제작된 인물은 흑백의 대비 속에서 경쾌한 리듬감을 만들어 낸다. 대중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활용하면서도 도자예술만의 조형 언어로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작가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레트로 문화에 대한 애정은 <Retro Series>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예전 문방구 앞의 미니 오락기와 테트리스 볼록은 한 세대의 기억을 공유하는 상징적 대상들이다. 최 작가는 이를 도자라는 물성을 통해 재해석함으로써 추억을 소환한다. 작품 속에 새겨진 검은 패턴은 작가 특유의 시각 언어이자 기억의 흔적처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

<사실은 나도... 소녀감성>은 로봇의 강인한 외형과 소녀의 부드러운 내면을 결합해 인간의 다층적인 모습을 유쾌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회전하는 전시 방식은 외강내유의 메시지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뒤집으면 내 짝지! _가변 설치_슬립캐스팅, 슬립캐스팅, 무유, 1250도 산화소성, 2026.

이처럼 최 작가에게 예술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감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하여 추억을 찾아내고, 기억을 공유하며, 예술과 대중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 도예공방 '놀이도운명'
- 개인전 5회, 단체전 60여회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학과 석사 졸업 (도예전공)
- 신라대학교 공예학과 학사 졸업 (도예전공)
-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구, 부산 디자인고) 졸업

하늘을 향한 자유의 꿈

5월11일~17일, 타워아트갤러리



조각가 김경호

자연적인 재료를 활용한 설치 및 입체조각 작업을 지속해온 김경호 작가의 개인전이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타워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하늘을 날다'를 주제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작가의 사유를 담아낸 13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의 중심에는 '비행'의 이미지가 자리했다. 전투기를 연상시키는 형태와 폭탄을 매단 구조를 통해 자유를 위한 기술과 문명이 때로는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제시하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물었다.

특히 전시작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길이 3m에 이르는 대형 비행기 설치작품이다. 제작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작품으로, 비행에 대한 인간의 오랜 꿈과

이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김 작가는 2년 이상 자연 건조한 대나무를 붉은 실과 한지로 엮어 형태를 구축하고, 레진 오브제를 결합해 작품을 완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재료와 시간을 축적하며 조형적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가의 태도를 보여주며,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그의 상상력은 작품 속 자유와 이상, 평화의 메시지로 확장된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가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늘을 날다 녹색목판 _3000 x 1200 x 1100mm _대나무, 한지, 레진, 명주실, 2026.

잃어버린 감각 위에 스며든 회복의 시간

5월16일~6월 21일, 갤러리 화인



서양화가 장연경

장연경 작가의 개인전 '잃어버린 감각의 회복'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갤러리 화인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오른손 수술과 회복의 시간을 지나며 경험한 감각의 변화에서 출발한 작업들로, 회화·영상·설치작업으로 풀어낸 27점을 함께 선보이며 몸의 기억과 회복의 시간을 섬세하게 풀어냈다.

정 작가는 두 차례의 오른손 수술 이후 감각을 잃고 멈춰버린 신체의 시간을 마주하며, 다시 그린다라는 행위의 의미를 되물게 되었다. 움직이지 못하는 손 안에 머물던 동종과 침묵, 표현되지 못한 감성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천천히 화면 위로 스며들었다.

전시 작품들은 반복되는 선과 색의 층위, 지워지고 다시 생기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사라

진 줄 알았던 감각의 흔적들을 더듬어간다.

명확한 형태 대신 여백과 리듬 속에 머무는 감각을 담아내며, 화면 위 형상들은 동상의 흔적처럼 조용히 떠올랐다.

특히 작품 〈영해(盈虛)의 달〉은 차고 이지러지는 달의 흐름처럼 머무르지도 서두르지도 않는 감정의 시간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관람객들은 작품 사이를 거닐며 작가가 지닌 상처와 회복의 흔적을 공유하듯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반복되는 선과 색의 층위는 무더진 감각과 잊혀진 감성들을 다시 환기시키는 회복의 언어로 다가왔다.



영해(盈虛)의 달 1 _60.6 x 72.7 cm _oil on canvas, 2026.

흙의 감각으로 빚어낸 삶의 서사

5월 27일~6월 27일, 갤러리 봉선화



공예가 한윤빈

공예가 한윤빈 작가의 열한 번째 흙 이야기가 5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갤러리 봉선화에서 열렸다. '흙의 일상-토·작·유·화'라는 부제 아래 마련된 이번 전시는 흙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물리적인 재료를 통해 삶의 감각과 내면의 시간을 섬세하게 풀어냈다.

한 작가는 삶 속에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미세한 감정과 감각, 그리고 순간의 영감에 주목했다. 흙을 빚고 다듬고 불 속에서 기다리는 과정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겹겹이 쌓이며, 어느 순간 새로운 몸과 기쁨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작업으로 이야기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중심에는 'Coil winding method on paper bundle'(종이 뭉치에 코일링 감기 기법)이 놓여 있었다. 적당히 뭉친 종

이 위에

흙의 코일을 감아 올리는 방식은 기존 도예의 고정된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와 감각적 리듬을

고요히 가리운 평온 _12x7x8cm _Ceramic, 2026.

다. 반복적으로 감겨 올라가는 흙의 선들은 작가의 시간과 감정, 사유의 흔적이자 삶의 결을 드러내는 기록처럼 읽혔다.

한 작가의 작업노트에는 이러한 감각이 사적인 언어로 담겨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느리게 느리게 춤추고 싶다"는 고백처럼, 작가는 일상 속에 잠시 멈춰 서서 흙과 함께 삶의 호흡을 길게 늘여갔다.



기억의 파편 위에 그려낸 사유의 풍경

6월 6일~22일까지, 갤러리 아트룩



서양화가 권영술

서양화가 권영술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6월 6일부터 22일까지 갤러리 아트룩에서 열렸다. 'STON: 기억의 지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작가가 구축해 온 가상공간의 회화 세계를 바탕으로, 최근 연작 〈Ston〉을 중심으로 두고 기억과 시간, 욕망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권 작가는 화면을 하나의 '기억의 지도'처럼 구성하며, 시간과 공간이 재거된 공간 속에 인물과 건축, 악기, 텍스트와 기호, 꽃과 코끼리 같은 상징적 오브제들을 파편적으로 배치했다. 흩어진 이미지들은 서로 연결되며 또 다른 서사를 만들어낸다.

전시의 핵심인 'STON'은 시간이 용고된 상태이자 욕망이 남긴 침전물에 대한 은유다. 화면 위에 촘촘히 쌓인 점들은 장식적 요소를 넘어 기억과 사유의 화석층으로 기능하며, 가까이에서는 개별 존재처럼, 멀리에서는 단



Dream of the butterfly _227.3 x 181.8cm _acrylic colors on canvas, 2021.

단한 질량처럼 인식된다. 화면 속 점과 기호, 텍스트의 흔적을 따라가며 보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작품 위에 투영하게 된다. 또한 이번 전시는 삶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Polaris〉, 존재와 욕망의 가치를 질문하는 〈Craving〉,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Dream of the Butterfly〉 연작과도 연결되며,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의 별자리처럼 이어지는 그의 회화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생의 바다를 헤엄치는 인간 군상

6월9일~8월9일, 153갤러리



수채화가 정용근

살의 회로예락을 물고기의 형상에 담아낸 정용근 작가의 개인전 '빛-시(詩)인스투스'가 6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153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인간 존재의 근원과 삶의 여정을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성찰하며, 생의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를 상징적 이미지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정 작가는 인간의 삶이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시련과 좌절,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바라보았다. 수많은 선택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살아 가고, 신앙을 통해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물고기 형상으로 치환시킨다. 화면 속 물고기들은 생의 바다를 유영하는 인간의 자화상이다. 서로 다른 개체들이 군집을 이루고 방향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



빛-인스투스 _53 x 42cm x 12장 _watercolor on paper, 2025-2026.

으로 드러낸다. 여기에 현대적인 색채와 드로잉을 결합해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이번 전시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는 숫자 '153'은 종교 구절에 기록된 '153마리의 물고기'에서 비롯된다. 종교적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 잡은 큰 물고기의 수인 153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 숫자로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성서적 상징은 인간 존재와 공동체, 그리고 회개의 가치를 담아 조형언어로 재해석된다.

바위에 새긴 존재의 철학

7월20일~24일, 경성대학교 제2미술관



한국화가 정효순

바위를 배경으로 인간 존재와 생명성의 본질을 탐구해온 정효순 작가의 개인전이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성대학교 제2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양화의 전통적 조형언어를 바탕으로 현대수묵의 실험적 확장을 시도한 작품 총 34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 작가에게 바위는 시간의 축적과 존재의 지속성을 품은 상징적 형상이다. 작가는 오랜 시간 자연 속 바위를 관찰하며 그 안에서 강인함과 안락함, 생성과 소멸, 관계와 공존하는 무게를 견디는 인간의 삶의 본질을 발견해 왔다. 화면 속 바위는 삶의 무게를 견디는 인간의 초상이자 사회를 이루는 개별 존재들의 은유로 나타나며, 서로 기대고 맞물려 지탱하고 균형을 이루는 형상은 인간과 인간, 개인과 사회, 자연과 존재의 관계성을

성찰하게 한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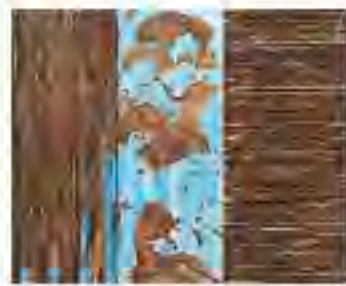
작가는 전통 동양화의 형식적 틀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식을 융합함으로써 재료와 기법의 경계를 확장하고, 동양화의 현대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동양화가 동시대 미술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탐구이자 자연과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미학적 제안이 될 것이다.



큰 바위를 지탱하는 작은 바위 _130.3 x 162.2cm _수지, 먹, 수묵본채, 2026.

조용문·젬마팔렛 작가 2인전 열려

5월20일~25일,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



조용문_mapping026-03K_60.6x72.7cm_mixed media, 2026

조용문 작가와 젬마팔렛 작가의 2인전이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

루와 구리 가루, 부식액 등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완성되는 작품은 시간의 퇴적층처럼 독특한 질감과 깊이로 만들어냈다. 반면, '마음을 그리는 작가로 알려진 젬마팔렛 작가는 오랫동안 종교, 철학, 심리학



점마팔렛, 마음달_52.5x72.5 cm_Acrylic on canvas

4층 부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서로 다른 작업 세계를 구축해 온 두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삶의 흔적을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냈다. 조 작가의 맵핑 시리즈 23점과 '마음'을 주제로 한 젬마팔렛 작가의 작품 28점이 전시됐다.

조 작가는 철학적 사유와 함께 무의식의 지도화(Mapping) 작업으로 작품을 이어오고 있다. 어린 시절 길을 잃었던 경험은 작가에게 '지도라는 상징을 깊이 각인시켰고, 이는 지도의 개념을 확장시켜 인간의 욕망과 권력, 불안과 기억이 중첩된 상징으로 바라본다.

캔버스 위에 버려진 골판지를 덧붙이고 칠가

등에 몰입하며 인간의 마음과 내면의 원리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대표작인 '마음달'은 영국 킹스턴대학교 석사 시절, 작은 방에서 작업하던 어느 밤의 기억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달빛과 별빛이 자신의 꿈과 함께 가고 있다는 감정을 담아낸 작품은 이번 전시를 앞두고 이해인 수녀의 감성평까지 더해지며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다.

이를 통해 젬마팔렛 작가가 따뜻함과 동심, 자유의 감정을 전한다면, 조 작가는 시간과 흔적, 소외된 존재의 목소리를 통해 삶의 본질을 묵직하게 사유하게 만들었다.

양진호·백성흠 작가 2인전 열려

9월9일~14일, 인사아트센터



양진호_별들의 향연_50x50cm_아크릴, 혼합재료, 2026

오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 4층 부산갤러리에서 열리는 양진호·백성흠 2인전은 서로 다른 조형 언어를 통해 빛과 생명, 그리고 인연과 풍경에 대한 깊은 사유를 펼쳐 보인다. 백 작가는 유럽의 도시와 자연 풍경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온 작가다.

몽마르트르, 산타이오, 프리하 등 이국적인 공간에서 마주한 빛과 색채의 인상을 화폭 위에 옮기며 현실과 기억, 그리고 심상이 어우러진 서정적 풍경을 선보여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럽을 스캔차여행하고 제작한 작품들로 구성된 유럽의 인상전을 선보인다. 여행지에서 얻은 기억과 인상은 삶에 대한 그리

움과 희망을 담아내며, 관객들을 추억과 감정의 여정으로 이끈다.

양 작가는 평면 회화 위에 실이라는 독특한 오브제를 활용해

인간 삶의 관계와 순환을 시각화해 왔다. 줄곧 혼합매체를 이용한 입체적 회화 작업을 이어온 그는 이번 전시에서 '빛과 어둠의 순간들: 인연의 궤적'을 주제로 실속 인연의 의미를 탐구한다.

작품 속 복잡하게 얽힌 실의 구조는 인연관계의 회로애락을 상징하며, 별자리와 같은 점과 선들은 우리가 살아가며 맺게 되는 수많은 인연의 흔적을 일시한다.

백 작가는 자연과 풍경 속에서 발견한 빛을 통해 생명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양 작가는 인간 관계와 내면의 풍경 속에서 빛과 어둠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백성흠_산타이오 콤포스텔라_35x50cm_Oil on canvas

제3회 화린회 정기전 개최

9월 29일~10월 4일, 금련산갤러리

신라대학교를 졸업한 작가들로 구성된 화린회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정기전을 개최한다.

2024년 결성된 화린회는, 서로 다른 개성과 작품세계를 지닌 작가들이 순수한 창작 의지와 우정을 바탕으로 모여 탄생했다.

단체명 '화린회'는 순우리말 '하린'에서 유래했다. '하린'은 하늘처럼 넓고 큰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여기에 그림을 뜻하는 '화(畵)'를 더해 '넓고 넓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총 7명의 회원 가운데 한국미술협회 회원인 정영신, 양수미, 박주희 작가와 신재연, 박성희 작가 등이 참여해 각 8~10점씩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표현 방식을 아우르는 작품들은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동시에 화린회가 지향하는 공동체 정신을 함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화린회는 우정에서 출발한 작은 모임이 예술이라는 공동의 언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창작 공동체를 지향한다. 대학 시절 꿈과 열정을 나누었던 동료들이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교류하며 서로의 작품세계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가운데 예술적 역량과 창작의 영감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쌓아온 작업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이자, 서로 다른 예술적 언어가 하나의 공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제2회 화린회 정기전 발췌작

미화 회상전

5월 9일~16일, 해운대문화회관

올해故차경복화백의 2주기를 맞아 프로젝트 그룹 '미화회상'을 결성하여, 그 첫 번째 결실로 '제1회 미화 회상전'을 5월 9일부터 16일까지 해운대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었다.

미화미술학원들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자리했던 입시미술학원이자故차경복 화백의 작업 공간이었던 미화미술학원을 거친 1988년부터 1998년 졸업생을 중심으로 박은생, 박은영, 신무경, 윤수미, 이현기, 정연경, 현라라 등 7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故차경복 화백은 사립 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부산에서 미화미술학원을 운영하며 부산 예술고등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등 출강하며 지역 미술교육 발전에 힘써왔다. 또한 자연과 일상의 정서를 깊이 있는 필치와 풍부한 색감으로 담아내며 개인전 13회, 350여회의 단체전에 출품하였으며, 제3회 송해수미술상을 수상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제1회 미화회상전 전시장 사진

이번 전시는 동문전의 의미를 넘어, 한 사대를 함께 지낸 예술가들이 스승의 예술 정신과 교육 철학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이 현재 각자의 작품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참여 작가들은 조각, 공예, 서양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며 각자의 삶과 작업 속에서 이어온 예술적 여정을 공유했다.

작품들 속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스승과 제자, 동료 간의 인연, 학창 시절의 추억, 그리고 예술가로 성장해 온 시간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었다.



제46회 부산미술제 개최요강

주최: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
주관: 부산미술제 운영위원회
전시일정: ● 전시: 2026년 10월 15일(목) ~ 10월 18일(일) 10:00 ~ 19:00 (입장마감시간 17:30) ● 전체 개막식: 2026년 10월 15일(목) 오후 4시 - 벡스코 제2전시실
출품대상: ① 부산미술협회 회원 ② 비회원: 본 협회 회원 1명이 추천하는 자
출품자료 제출일자: 2026년 7월 31일(금)까지
출품서류: 제출용원서(소장장식)부, 민물사진(흑백 또는 컬러) 1매, 작품사진(슬라이드 또는 5x7 Size 사진) 1매 (별 35도에 자료를 올리신 분은 반드시 원서제 7페이지를)

나)명상·설치·행위분과의 경우(계획서)와(도록용 자료사진)을 제출하고 운영위의 사전협의 하에야 함. (특정사건은 반드시 출품제출과 일치하여야 하며, 구가되지 않도록 기밀적 보호를 사용바람)
(별도시그림의상, 하, 좌, 우우회표시할 것)
출품수 1인 1점에 한함.
자료제출장소: 부산미술협회 사무국 (부산광역시 남구 을소로 78 부산예술회관 4층 402호 (우)48501)
자료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접수, 웹하드 (www.webhard.co.kr) → 접속시 게스트 선택 웹하드(ID: bfaa21/비밀번호: 2004/출대명: 제46회 부산미술제-회원, 비회원-각 부문별)
출품료: 회원 8만원 (도록은 1인당 1부씩 배부) / 비회원 20만원 (도록은 1인당 1부씩 배부)
이래 계획로 부통장 입금 7월 31일(금)까지에 납부 (입금처명: 다들 경우 반드시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은행 022-13-001105-2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 회계

작품출품 규격

구분	규격
평면(회화)	15호 이내(규격 명시) - 가로직을 액자포함 65cm 이내 (한국화, 서양화, 민화, 수채화, 민화(복화 등))
디자인	A1사이즈 이내 - 세로직물(필) 60cm×60cm×180cm(이내)(입체작품 최대 개인준비)
입체(조각, 공예)	도난의 우려가 있는 소형의 작품이나 귀금속 공예 등은 투명보호 상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출품하여야 합니다. 출품원서 검토 후 전시행위(공간 조정) ※입체작품 최대 개인준비
영상, 설치, 행위미술	출품원서 검토 후 전시행위(공간 조정) ※입체작품 최대 개인준비
학술논문	A4(1페이지 이내)
서예, 문인화	가로50cm, 세로70cm 이내 (가로직물 액자포함 65cm 이내)

※타문의 부산미술협회 사무국 (051)632-2400

2026 부산공예예술제

5월14일~25일, 한새갤러리



2026 부산공예예술제 오픈식 단체사진

부산공예예술제 및 부산공예예술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부산공예예술제운영위원회가 주관한 '2026 부산공예예술제'가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부산교육대학교 한새갤러리 전관에서 열렸다.

부산 지역 공예인들의 축제이자 글로벌 공예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공예작가 133명이 참여했다. 'THE INITIATIVE OF CRAFT'를 주제로 공예의 역할과 위치를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그에 걸맞은 활동을 펼쳐 나가는 의미를 담아 부산 지역 공예작가들이 예술적 주제성을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자, 목질, 섬유, 금속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각자의 예술 철학과 재료의 물성을 바탕으로 개성있는 작품 133점을 선보였다.

오픈식은 5월 14일 오후 6시에 열렸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새갤러리 앞마당에서 '가까마켓(CACA플라마켓)'이 함께 진행됐다.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행사는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통 공예 기법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을 통해 공예예술의 깊이와 가치를 보여주었다. 또한 해외 9개국 11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부산공예예술제가 지역을 넘어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공예 전통이 한 공간에서 만나 다양한 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부산 공예계의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와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에 의미를 더했다.

주최 측은 "부산공예예술제가 지역에서 대표하는 공예예술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해외 작가들과 관람객들에게 부산 공예예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34회 부산한국화전 '부산-경남 교류전'

6월27일~7월5일 시청 제2, 3전시실



김홍식_계곡_45x65cm_수묵담채, 2026

부산한국화협회가 주최하고, 부산한국화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사)부산미술협회가 후원하는 '제34회 부산한국화전' 부산-경남 현대한국화 모습 찾기 교류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부산한국화전의 참여 작가로는 부산미술협회 한국화 분과 회원 및 비회원, 경남미술협회 한국화 분과 회원들로 구성되어있다. 회원, 경남작가들이 참여한 작품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부산시청 제2, 3전시실에서 열리며, 회원, 비회원들의 작품은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이바나인 갤러리에서 열린다.

한편, 전시 오픈식은 6월 29일 오후 5시30분 부산광역시 시청 제3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현대 한국화의 모습 찾기 교류전을 주제로 하여, 부산 현대 한국화의 다양성과 경남 지역 한국화의 특색 및 흐름을 함께 조망하고 교류함으로써 동시대성을 함께 호흡하는 기회의 부산 현대 한국화로 거듭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특히 수묵과 채색, 추상적 표현과 서정적 화풍 구성 등 폭넓은 작업 경향이 함께 소개되며 부산-경남 한국화의 현재 흐름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전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서로의 작품 세계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부산과 경남이라는 인접한 지역 안에서 형성된 서로 다른 감수성과 조형 언어는 전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동시대 한국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지역미술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다.

부산한국화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와 전시를 통해 부산 현대 한국화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외연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26 제30회 부산회화제-동행2026展

6월23일~27일, 부산문화회관 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렸다.

부산 미술계의 대표적인 회화 축재인 제30회 부산회화제가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렸다.

올해 전시는 원로작가 28명, 회원작가 204명, 비회원작가 188명 등 총 418명이 참여해 부산 서양화단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대규모 전시를 선보였다. 개막식은 6월 23일 오후 5시 30분 부산

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재료와 형식의 다양성을 더욱 강조했다. 참여 작가들은 각기 다른 예술적 언어와 조형 세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선보였으며, 구상과 추상, 반구상, 개념미술 등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사회적 담론을 담아냈다.

부산회화제의 시작은 1998년 부산구상회화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서양화분과 회원 중심의



상현환_꿈지마, 31.7 x 41cm,

구상회화 전시로 출발했지만, 이후 부산지역미술의 저변 확대와 지역 미술 활성화를 위해 비회원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전시로 발전해 왔다.

특히 초기에는 구상회화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시대 변화와 예술적 흐름에 따라 구상과 반구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수용하는 전시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부산회화제는 재료와 형식을 폭넓게 이루는 부산 미술계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새로운 시도로 소품 판매전 소소한 행복전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창작 환경 속에서도 참여 작가들에게 작은 즐거움과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처럼 부산회화제는 서로 다른 세대와 감각이 공존하는 회화의 장으로서, 매년 꾸준한 전시를 통해 지역 서양화의 흐름을 공유하고, 부산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회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6 서예분과전 '부산미술서예명작전' 개최

7월13일~19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부산미술서예작가협회 출범식 - 조장례

부산 서예계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부산미술서예명작전'이 오는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부산예술회관 3·4층 전시

과 지속적인 전시 활동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작가들은 2024년 부산미술서예작가회라는 명칭 아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북향만리선명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전시에는 한문, 한글, 전각 등 다양한 서체와 표현방식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서예예술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작가들은 전통적인 미학을 바탕으로 고유한 속에서도 강렬한 생명력을 품은 작품들을 선보이며, 필선에 담긴 운필의 흐름과 작가의 호흡, 그리고 시간의 깊이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전시 기간 중 7월 18일과 1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채에 행복 글씨 쓰기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시민들은 직접 붓을 들고 자신만의 문구를 써보며 서예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보다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통 서예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조망하는 동시에 현대 사회와의 소통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부산미술협회 서예분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산미술서예작가회가 주관하며, 부산에서 활동하는 대표 서예작가 104명이 참여해 전통 서예와 예술적 가치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미술서예작가회는 부산미술협회 서예분과 회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단체로, 1982년 이후 등단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서예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 서예계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

2026 부산조각가협회전-지역을 넘어II 개최

8월31일~9월6일, 부산예술회관



지난해 열린 부산조각가협회전 전시상 모습.

부산조각가협회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산예술회관 3·4층 전시실과 야외 광장에서 '2026 부산조각가협회전-지역을 넘어II'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부산 조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조각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2024년 경남조각가협회와의 교류전에 이어 진행되는 두 번째 지역 교류 프로젝트로, 전라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 17명을 초청하여 부산 조각가들

과 함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부산조각가협회 소속 작가 50여 명이 실내 전시에 참여하며, 야외광장에서는 10여 명의 작가가 대형 조각 작품을 공개한다. 여기에 전라도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이 더해져 총 70여 명에 이르는 작가들의 조형 언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장이 마련된다.

오늘날 조각은 전통적인 석재와 금속뿐 아니라 목재, 호환재료, 설치, 환경조형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역별 작가들이 각자의 작업 방식과 조형적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재료와 표현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동시대 조각의 흐름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과 전라도라는 서로 다른 지역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조각의 특성과 정체성을 비교하고 이해함으로써, 지역이 가진 문화적 자산과 예술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참여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자연, 삶의 풍경을 각기 다른 조형 언어로 풀어내며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5회 G-ART 부산 국제전

5월18~23일, 부산시청 제2,3전시실

부산 G-ART 협회가 주최한 '제5회 G-ART 부산 국제전'이 지난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청 제2·3전시실에서 개최되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는 부산을 비롯해 울산, 양산, 김해, 서울,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작가들과 해외 작가들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국제전으로, 총 176명의 작가가 뜻을 모았다. 부산 G-ART 협회 정회원 104명과 비회원 작가 20여 명, 타 지역 작가 40여 명, 해외 작가 11명이 참여했으며, 지상천을 제외한 171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다채로운 예술 세계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제5회 G-ART 오픈식 기념 단체사진.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시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출품작은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판화, 민화 등의 장르로 구성되었으며, 원로 작가부터 신진 작가, 비회원 작가까지 폭넓게 참여해 세대와 지역, 장르를 아우르는 열린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제21회 부산환경미술협회 정기전

6월23~28일, 을숙도갤러리

제21회 환경미술협회 부산지회 정기전 '환경과 자궁'이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을숙도문화회관 을숙도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전은 환경 문제에 대한 예술적 성찰과 실천의 의미를 담아내며, 지역 미술인들의 연대와 환경 의식을 함께 조명하는 자리였다. 부산환경미술협회는 2003년 창립된 미술단체로, 부산미술인들이 작품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한 아름다움의 창조로 우리가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환

경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사에는 고문·초대작가 및 회원 작가 약 10명



(시계방향으로) 제21회 정기전 '환경과 자궁'에 대하여 태극기, 환경 사진 및 환경문, 홍천호, 이종길 작가 대표 작품.

작가 약 10명이 함께했다. 출품 분야는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문인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작품은 20호 이내의 평면 및 입체 작업들을 선보였다.

2026 형맥아트쇼 개최

7월14일부터 19일까지, 금련산갤러리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2026 형맥아트쇼'가 열린다.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은 형맥회는 1995년 부산미술협회의 임원을 비롯해 지역 미술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작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미술단체이다. 예술의 형(形)과 맥(脈)을 이어가며 지역 예술 발전과 국내외 활동 영역 확대를 목표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등의 작품들이 출품된다. 특히 한국화의 김수길, 이정근 작가를 초대작가로 초청하였으며, 참여 작가들의 서로 다른 조형언어와 작품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계방향으로) 2026 형맥아트쇼 오픈식 현장 사진 및 전시장 전경.

번 전시는 참여작가 작품을 기반으로 제작한 미디어아트 영상 상영 등을 통해 관람의 몰입도를 높인다. 전시 기간 동안 작가들이 직접 상주하며 일일 큐레이터와 도슨트 역할을 함께 수행해 관람객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전시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로터스전 '공존과 어울림' 개최

7월21일부터 26일까지, 금련산갤러리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로터스전 '공존과 어울림'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미술의 흐름을 담아낸 자리로, 다양한 장르와 표현 방식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확장 가능성을 선보인다. '공존과 어울림'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의 전통과 역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과 미래지향적 시도를 담은 작품들을 함께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는 약 70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10호 이내의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된다. 작품들은 한국화, 서양화 등 장르의 경계를 넘어 각

기 다른 조형 언어와 표현 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로터스전은 고유한 미의식과 현대적



(시계방향으로) 로터스전 서은경, 김수길, 김지영 작가 대표 작품.

실험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점이 특징이다.

전통은 작품의 깊이와 안정감을 형성하고, 현대적 시도는 그 위에 새로운 감각과 생동감을 더하며 유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

제65회 길동인전 개최

9월 1일부터 6일까지, 금련산갤러리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동문 미술단체인 길동인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제65회 길동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길동인-선배와의 화합전을 주제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원로 화원들과 젊은 세대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세대 간 예술적 교류와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길동인회는 1963년 부산공보관에서 고(故) 문순상 화백을 중심으로 10명의 작가가 창립전을 열어 첫발을 내디뎠다. 현재 서양화, 한국화, 민화장르 등 작가 35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랜 전통 속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계승을 모색해 온 길동인회



(시계방향으로) 길동인회 제65회 전시회 오픈식 현장 사진 및 대표 작품. 국선화, 김중수.

는 제63회 전시회부터 작고한 길동인 작가 3인의 작품을 함께 소개하며 선배 예술가들의 창작 정신과 예술적 유산을 기리는 뜻깊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제23회 부산국제디자인제

8월30일~9월6일, 부산광역시청



제23회 부산국제디자인제 포스터.

제23회 부산국제디자인제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산광역시청 제1·2·3전시실에서 7일간 개최된다. 올해 기획전의 주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혼 가족 김성

치유전으로 진행되며, 10여 개국 국내외 작가 160여명이 함께하는 메인 전시와 더불어 60여 명이 참여하는 학생체험전, 문화예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과 디자인의 창의적 역량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와 가족의 청서적 안정, 행복한 가정문화 형성, 미래세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인구정책의 관점이 아닌 '우리는 지금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문화예술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가치와 공동체 문화의 관점에서 조명하며, 국민적 공감과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2026 제15회 BFAA 국제아트페어

주최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
주관 2026 BFAA 부산미술협회 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회
전시기간 2026년 10월 15일(목) ~ 10월 18일(일) (4일간)
장소 부산백스코 제2전시장 (B, C, D홀)
전시장르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서예, 학술평론, 영상설치화,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전시구분 부스구분(A부스, B부스, C부스)
부산지역 청년작가 초대전 / 부산사랑 10가지 순회 시민예술제 전시 및 시상식 / 국제교류전 실행 / 아트마켓 * 협회 사정으로 변동 될수 있음
접수기간 2026년 7월 10일(금) 17시까지
* 참가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www.bfaa.or.kr>)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인터넷 접수
웹서드 (www.webhard.co.kr) - 접속시 게스트 센터

웹서드ID: bfaa21/비밀번호: 2004 부산전/초대전

*참가비

부산광역시청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4층 402호

부산미술협회

참가비 납부 7월 24일(금)까지 납부

(*기간내 밀려 납부하면 안됨)

* 부산은행 101-2046-8532-01

예금주) 사단법인부산미술협회 회장님

증빙도표자로 세출 7월 24일(금)까지증빙도표로

들어갈 작가사진, 프로빙, 작품 이미지 자료 1점

부스배정 부스 위치는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부스추첨 2026년 7월 31일(금) 부산미술협회 사무국

*협회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부스구분 및 가격

* 부스의 분할사항 / 종합도표, 홍보비 및 책상 1개, 의자 1개, 기타 제반 비용 포함

(종합도표: A부스 1page, B부스 2page, C부스 3page 계제)

* A부스 최대 2인, B부스 최대 4인, C부스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며 page 2회 이상은 추첨 협의

* 전시장 사용에 의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종간가액은

부산미술협회회원 50% 이상 참여해야 인정. /기본제품 외 판넬,

조명, 부스도서 추가는 후회 개별 신청 (추가 판넬 및 조명이,

부스도서에 개인부담)

문의 사)부산미술협회 전화 051-632-2400

비율	수량	크기	기본제공	부스비
A 부스	66개	최우측 2m, 전면벽 5m, 높이 3m	1m×3m 9장, 조명등 6개, 책상 1개, 의자 1개	회원 140만원 /종간 160만원 비회원 180만원
B 부스	20개	최우측 3m, 전면벽 6m, 높이 3m	1m×3m 12장, 조명등 9개, 책상 1개, 의자 1개	회원 190만원 /종간 210만원 비회원 230만원
C 부스	11개	최우측 2m, 높이 3m, 전면벽 10m+2m	1m×3m 16장, 조명등 12개, 책상 1개, 의자 1개	회원 250만원 /종간 280만원 비회원 300만원

부산시립미술관, 9월 17일 재개관 앞두고 2026년 청사진 공개

“미래를 선도하는
공공·공유의 미술관” 선언,
확장된 미술관의 가능성 제시

부산시립미술관이 약 2년에 걸친 리노베이션을 마무리하고 2026년 9월 17일 재개관을 앞두고 새로운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미술관은 재개관 이후 ‘미래를 선도하는 공공·공유의 미술관’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전시·연구·교육·시민 소통 전반에 걸쳐 변화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998년 개관한 부산시립미술관은 지난 28년간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변화하는 문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시장과 수장고, 출입구 등 주요 시설을 개선하고, 카페와 문화 편집숍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건물 내부와 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개방형 공간 구조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재개관 이후 선보일 전시는 부산시립미술관이 지향하는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프로그램이다. 미술관은 총 5개의 주요 전시를 통해 국제성과 지역성, 역사성과 동시대성,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폭넓게 탐색하며 공공미술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전시는 재개관 특별 국제전 〈뷰처 뮤지올로지〉(가제)다. 국내외 10여 개 미술관 협의체와 공동으로 기획되는 이번 전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술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과거 미술관이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전시하는 기관이었다면, 오늘날의 미술관은 사회적 의제를 공유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공공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해 미래 미술관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며, 재개관 이후 부산시립미술관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7일 재개관 예정인 부산시립미술관 조감도.

재개관 특별 국제전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바다의 높은 물결 위에 있다: 1945-1953년의 사회와 미술〉(가제)은 역사와 예술의 관계를 조명한다.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이어진 격동의 시기를 미술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전시다. 해방 직후 사회를 가득 채웠던 희망과 열망, 그리고 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사회적 상처와 기억을 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특히 역사 기록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서사와 공백을 동시대 예술가들의 관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미술이 역사와 사회를 읽어내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예정이다.

소장품 특별전 〈다시 짓는 미술관〉(가제)도 의미 있는 전시로 기대를 모은다. 이 전시는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이후 재개관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기관 기록과 건축 자료,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미술관 자체를 전시의 대상으로 삼는다. 건축 공간의 변화뿐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문화 정책, 시민들의 문화 향유 방식 변화 속에서 미술관이 어떤 의미를 획득해 왔는지를 돌아보며 공공미술관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어린이갤러리에서는 〈안전기지〉(가제)가 개최된다. 미술, 건축, 동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린이들이 감각

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단순한 체험형 전시를 넘어 어린이들이 정서적 안정감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정 애착의 공간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우환공간은 설치 작품 일부를 교체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연구와 수집 분야에서도 재개관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예술·기술·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대표 미디어 조형물을 제작해 선보일 계획이다. 세계적인 작가 히토 슈타이얼과 아이 웨이웨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환경 위기와 사회적 갈등, 기술 발전의 명암 등을 예술적으로 탐구한다. 인지와 기술,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관람객들에게 동시대 사회를 성찰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된다. 재개관 이후에는 주요 전시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어린이갤러리와 연계한 체험형 교육을 운영한다. 관람객들이 전시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미술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도슨트 양성 교육 심화 과정을 운영해 전문성과 전달력을 갖춘 전시해설 인력을 육성



부산시립미술관 기존 모습



부산시립미술관 전시장 두시도.



부산시립미술관 카페 두시도

할 계획이다.

시민과의 소통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부산시립미술관은 현재 SNS를 통해 약 4만 9천여 명의 온라인 관람객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오프라인 참여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형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다 낮은 문턱과 열린 운영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년 9월 17일 재개관을 앞둔 부산시립미술관은 전시 공간을 넘어 예술과 기술, 역사와 미래, 시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롭게 문을 열 미술관이 부산 문화예술계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14회 한중일 어린이 그림전 시상식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 제14회 한중일 어린이 그림전 교류 공모전 시상식사가 부산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주최하고 (사)부산미술협회가 주관하며, 상하이시인대외우호협회, NPC법인사회교육단체페르포회(후쿠오카)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제14회

한·중·일 어린이 그림전 교류 공모전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주제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가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5월 4일 오전 10시 부산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위촉된 5명의 심사위원들은 주제에 대한 작품의 완성도, 창의성,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50명의 입상자가 선정되었다.

심사결과 최고상인 금상에는 여고초등학교 3학년 김진하, 수미초등학교 6학년 박은서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시상식은 7월 4일 오후 2시 부산도서관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청년작가전 워크숍 및 1차 선정결과



제14회 부산미술교류를 꾸며하다 워크숍이 4월 26일 오후 5시에 부산시청전시실에서 열렸다.

(사)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는 2026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제14회 청년작가 OPEN MATCH展이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부산시청 제1, 2, 3전시실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6일 17시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1차 선정 작가 워크숍을 가졌다.

1차 선정 작가로는 ▲한국화부문 김영주, 박소희, 윤연정, 이루나, 정희진, 최지을 ▲서양화부문 강윤주, 김현경, 박웅배, 박주영, 박주현, 박준현, 우형빈, 윤현지, 이규열, 이다현, 이현도, 임수정, 황산애 ▲조각부문 오영준, 이내강, 이상원 ▲공예부문 공민지, 김소은, 김희원, 박예은, 신민아, 심현성, 이소림, 이예지, 임수정, 조하얀, 조현우, 좌선우 ▲영상설치부문 김재영 작가로 총 35명이다.

2차 심사는 전시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2차 심사발표는 7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명주 초대개인전 'COME TRUE'
2026.4.1~5.1 B&N부산은행갤러리

희망과 믿음이 현실로 성취되는 과정을 따뜻한 색채와 상징적 이미지로 풀어낸 이명주 작가의 초대개인전이 열렸다. 작품 속 강한 빛과 꽃병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내면의 힘을 상징하며, 화면 곳곳에 피어난 꽃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전했다. 종이비행기와 스쿠터는 꿈을 향한 작은 시작과 도전의 용기를 은유하며 생동감을 더했다. 작가는 일상 속 작은 노력들이 결국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긍정의 메시지를 담은 메시지를 강렬적으로 전달했다.

2026 한일 국제 예술 교류展 '마주하다(向ふあひ)'
2026.4.16~4.20

아트동백이 주최하고 국제예술교류작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한국과 일본의 예술적 교감을 확인하는 첫걸음이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예술 세계를 한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시는 양국의 원로 및 중진 작가들이 참여하여 예술을 매개로, 2023년 일본 교토에서 시작한 인연이 부산으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었다. 참여 작가들은 회화와 다양한 조형 작품을 통해 각자의 정체성과 예술적 시각을 선보였으며 앞으로 더욱 폭넓은 국제 예술 교류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

루프랩부산 장혜련 MIGRATION
2026.4.23~6.28 동일고무빌드 동래공방

이번 전시는 청 작가의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하는 미디어 설치 작업으로 구성되었다. 작가는 동일고무빌드 옛 공장 지역의 실시간 날씨와 지형 데이터를 빛의 움직임으로 변환하여 산업 유산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고정된 과거의 공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이터와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변형하는 환경으로 재탄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실과 가상이 분리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감각과 존재 방식을 제시했다. 관람객들은 변화하는 빛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확장된 경험과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었다.

서은선 개인전
2026.5.4~5.8 해운대문화회관 제2전시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30여 점의 작품은 숲의 재현 '혹독' '조동' 시리즈로 구성되었다. 작가는 숲과 산, 물과 나무, 꽃을 바라보며 느낀 향기와 아우라, 그리고 자연이 전하는 생명의 기운에서 영감을 받아 '혹독' 시리즈를 전개하였다. 또한 나무 타지가 서늘하게 미치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조동' 시리즈를 통해 근계의 감정의 파장을 표현하였다. 작가는 이러한 감각과 자연의 흔적을 작품에 담아내며, 자연이 우리 삶에 남기는 깊은 울림을 전하고자 했다.

부산대학교 개교80주년 기념 작품전
2026.5.15~5.27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대학교 박물관 등 교내 일원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은 부산대학교에서 미술교육과·미술학과·디자인학과·조형학과 등 문 245명과 전·현직 교수진 27명이 참여한 기념 작품전이 개최됐다. 230점 이상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개막식은 5월 15일 오후 4시 부산캠퍼스 새벽홀에서 진행됐다. 부산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미술학과 조소 전공과 조형학과 입체 작품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아트센터에서는 미술학과와 디자인학과 의 평면 작품을 중심으로 선보였다.

공(空)과 상(象)
2026.5.29~6.2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기획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부산의 역동성과 다층적 서사를 시각예술과 현대음악으로 재해석한 융복합 전시·공연으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는 감동진(한국화), 김현숙(도예), 도대근(조소) 작가와 현대음악 전문 작곡가 단체 뮤직콰이 참여했으며, 익숙한 도시 풍경을 빛과 소리로 풀어내며 시각과 청각이 공명하는 예술적 경험을 선보였다. 특히 전시와 공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성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지닌 예술적 역량과 문화적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했다.

4월4色展
2026.4.9~4.25 갤러리 아비타2인

갤러리 아비타인의 초대 기획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예술적 성취와 깊이를 쌓아가고 있는 중견작가 이만현, 이상사, 이세훈, 한성희 4인의 참여로 이뤄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4월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한국화, 서양화, 매조네투, 혼합매체 등 서로 다른 형식과 재료를 통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작가들의 각기 다른 사유와 조형언어를 표명하며, 현대미술의 다채로운 변주를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제4회 일새전 '화양연화'
2026.4.21~4.25 금련산갤러리

제4회 일새전은 자연과 일상의 풍경 속에서 발견한 생명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감성을 유화작품들로 이뤄졌다. 여섯명의 작가들은 산과 들, 꽃과 나무가 품은 다채로운 색채와 빛의 변화를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하며 자연의 생명력을 화폭위에 펼쳐보였다. 서로 다른 표현형식과 색감은 하나의 전시안에서 따뜻한 색감으로 생명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담아내 웅장한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참여 작가로는 김계문, 이소자, 함진주, 김경옥, 김근태, 김승영 작가가 있다.

신홍직 개인전 '드래내고, 물다'
2026.4.29~5.4 갤러리온

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 동시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숨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교차하는 지점에 주목했다. 그는 타인의 시선 앞에서 스스로를 감추게 되는 심리를 모작하면서도, 결국 '보이지는 것과 받아들여지는 것' 사이에서 인간이 어떤 태도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조망해 되물었다. 화면 곳곳에 남겨진 두터운 붓질감과 색의 흐름은 감정의 충동과 화해의 과정을 밀도 있게 담았다.

제10회 이동우 개인전
2026.5.14~5.23 아월갤러리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캔버스에 담았다. 대표작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이의 모습은 가족이라는 존재가 지닌 든든한 울타리와 깊은 애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상하의 몸선 등의 이미지들은 꿈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순수한 열망을 감성적으로 표현했다. 사실적 묘사와 서정적인 색채가 어우러진 화면은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진정한 감동을 전하며 비록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사랑과 추억, 그리고 희망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

제24회 부산아외수채화 정기전
2026.5.18~5.23 부산시청 제1전시실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화폭에 담은 부산아외수채화회가 제24회 정기전을 개최했다.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화원들이 전국 각지의 자연 풍경을 현장에서 직접 스케치하며 완성한 수채화 작품들을 선보였다. 2000년 3월 정인성, 김웅대, 박호, 송승호 작가가 내원사 계곡에서 야외 스케치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태동한 부산아외수채화회는 33명의 화원이 참여한 정례전을 시작으로 자연의 생생한 풍경과 감동을 작품으로 기록하고 있다.

안정연展
2026.6.3~6.29 M543

안 작가는 무심히 지나치는 도시의 건물과 생활의 흔적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포착하며, 익숙한 풍경 속에 내재된 정서와 의미를 탐색하게 했다. 도시의 기원과 강성을 환기하는 사물들과 명백한 도시 풍경을 재구성한 화면은 우리가 잊고 지내던 공간의 감정과 존재의 흔적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단순화된 건축물과 절제된 색조로 표현된 푸른 복도의 구조와 분홍빛이 이어지는 마을 풍경은 그 안에 축적된 시간과 삶의 흔적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며, 적막한 공간 속에서도 온기를 품은 인간의 존재를 암시한다.

강명순 개인전 '가억의 장엄'
2026.4.14~5.1 양산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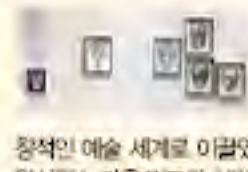
살 속에서 겹겹이 쌓인 시간과 자연의 흔적을 섬세한 조형 언어로 풀어낸 강 작가는 자연의 생성과 변화의 순간들을 정·선·면의 조화로운 리듬으로 엮어내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생명력과 내면의 감성을 담아냈다. 약사이자 화가로 살아온 또 다른 시간들은 작품 속에서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아우러져 자연의 정령을 이룬다. 이번 전시는 삶의 경험과 자연의 숨결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결국 하나의 결로 이어지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사유와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루프랩부산 조은필 '하얀 새벽, 작은 방으로부터'
2026.4.23~6.6 Project AC

부산시립미술관이 기획하고 루프랩 부산 프로젝트로 선보이는 조은필 작가의 개인전과 감성, 내면의 풍경을 펼쳐보는 색채를 통해 탐색하는 전시가 열렸다. 작가는 불루라는 색을 통해 자연과 감정의 흔적을 시각화하며, 미디어 작업 (내 안의 공간)과 설치 작업 (세울 수 없는 꿈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자연의 층위를 시각화했다. 사물과 장소를 블루로 담아 확장된 공간은 서로 다른 시간과 감정이 공존하는 내면의 풍경을 만들어내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드러냈다.

임원주 개인전
2026.4.29~5.11 갤러리 올

작가는 집을 인식의 공간이 아닌 불안정한 균형을 건드는 구조로 해석하며, 고려지 마방과 주병의 비어있는 출몰한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선보였다. 부산 신복도로의 계단과 골목은 삶의 빈틈과 실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또한 부산의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에서 착안한 기차 형상은 삶의 축적과 이동의 가능성을 은유적으로 드러냈다. 연작 후반부로 갈수록 기차가 구조 속으로 흡수되는 모습은 외부의 장치 없이도 지속 가능한 삶의 상태를 암시하며, 일상 속에서 버려진 시간의 의미를 상기시켰다.

관순교 개인전
2026.5.15~5.23 갤러리177

작은 시프섬에서 시작된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를 선보인 관 작가는 섬세한 드로잉을 통해 내면 감성이 자리한 감정과 사유를 화면 위에 펼쳐내며 관람객들을 독창적인 예술 세계로 이끌었다. 사프론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밀하게 완성된 놀라운 밀도와 치밀함은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내며 초현실에서도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하고 있다. 마치 내면 감성이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한순간 폭발하듯 화면 위에 분출된 형상들은 강렬한 생명력과 긴장감을 전달한다. 작가의 작품은 익숙한 현실을 벗어나 인간의 내면과 상상력이 어떻게 예술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성희 동판화전
2026.5.19~5.31 갤러리발터

한국 판화 1세대로 부산을 기반으로 사유와 통찰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한 작가는 'Image of Form'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 형태와 감성의 관계를 탐구해 왔으며, 절제된 이미지와 상연의 분위기를 담아낸 작품들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적인 '숨' 시리즈를 비롯해 동판화 특유의 깊이감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담은 작품들이 소개되며, 깊은 애칭 기법(Deep Etching)을 통해 표현된 상연의 공간은 감각적이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했다.

가은누리예술연구회 제8회 정기전 '상생'
2026.6.22~6.28 해운대문화회관 제1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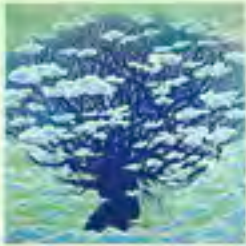
가은누리예술연구회 2019년 미술을 전공한 21명의 작가들이 모여 부산에서 시작한 예술 연구 단체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초대작가 10명과 미디어 아트, 판화, 수채화, 회화, 공예 등 26명의 참여 작가들이 함께 상생이라는 부제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조화롭게 선보였다. 이번 전시 기간 중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작품을 만들어 전시 종료시 하나의 나무가 완성되는 제형프로그램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회원님의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부산미술은 부산미술협회 회원님들과 미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계간지로 월초에 발간되는 부산미술은 회원님들의 귀중한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마감기한은 발간 전월 15일까지 전시소식을 부산미술으로 보내주시면 다음달 발간되는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bfaa1946@daum.net : 전시명, 작가명(단체전일 경우 참여 작가명단), 전시기간, 갤러리명, 연락처, 작품 이미지(저화질 게재 불가/파일 제목 캡션 필수), 기획내용 및 특징, 작가의 생각을 담은 작가노트 A4용지 1장 또는 1/2 분량]

부산갤러리 전시소식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후원하고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가 운영하는 전시공간입니다.



7.29-8.3 홍익중
독판화집 '하늘, 바다, 나무'



8.5-8.10 강병훈
개인전 '자연속의 생명'



8.26-8.31 최은송
가방쇼



9.9-9.14 백성훈
양진호 2인전

부산미술협회는 협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와 기부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회원 및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자 2026년 3월20일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기부금 운영규정」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기부자 명단을 「부산미술」 소식지에 게재하고, 정기총회 시에는 기부자 명단을 정기총회 책자에 수록합니다.

〈2026년 상반기 기부자 명단〉

(예정현전기) 곽순곤, 김미숙(레오김), 김중대, 박무숙, 박선민, 박옥남, 박원옥, 박인관, 박정숙, 박태원, 박효정, 이동우, 이상봉, 이선영, 정인동, 조귀선, 최장락

기부금 후원 계좌번호

101-2011-0138-03 부산은행 / 부산미술협회 최장락



3.25-8.30
최조희는 손, 여성의 시간,이세인의
작품공예
서아세인문화원 기획전시실



4.23-7.5
젊은 골동
백년가옥 오조광



4.23-7.25
What Is Seen, What Is Made
하룬 파로키 디오라마미술관



4.23-8.30
에리리 이리무영 SEED STORIES
고은아트미술관



4.30-7.19
다원예술 온 실험 중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 4



4.30-7.19
수집경정의 방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 5, 국장예술



5.12-7.25
김지은 개인전
성원아트갤러리



5.22-7.31
Gina Kim Gina
아바모모제이갤러리



5.22-10.25
워너 브론크호스트:온 세상이
간버스
그린드조션 부산



5.23-9.27
엘리스 달론 브라운 최고전
빌라주 드 아난티



5.29-9.27
2050 해양수도 부산 파도를 넘어
미래로
부산현대미술관 공예미술관



6.4-7.18
하얀벽의 개관전 '검과검'
하얀벽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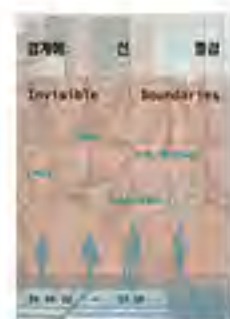
6.11-8.2
김홍석 개인전일의 숨결 Where
Threads Breathe
조현화랑 달빛이



6.11-8.2
최병호 개인전 나무는 침묵
Lingering Silence
조현화랑 해운대



6.12-7.13
입다인 개인전 빛이 머무는 자리
오브재후드



6.20-7.19
김민정 개인전 '경계에 선 풍경'
갤러리재희



6.24-7.18
이진아전은숙 수집된 관습, 해방된
재료
이점매너



7.3-10.25
미셀앙리와위대한 컬렉션리스트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7.9-8.26
권혁 개인전 권혁컬러의 새로운
시각
아바모모제이갤러리



7.27-8.1
2026 제25회 오늘의 작가상
및 청년작가상
부산광역시청 제2, 3전시실



8.1-8.9
이정주, 조세경 2인전
갤러리177



9.9-9.13
제22회 송해수미술상 수상자7인전
관현산갤러리

부산미술 동북연호 부산광역시 00005

발행인: 최장락
발행처: 부산미술협회
편집위원: 김성현, 김동원, 정연은, 진수아, 신현정

주소: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402호
Tel. 051) 632-2400 Fax. 051) 644-4183



제52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11.23월-12.12토

개막식_12.1(화)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2026

THE
52TH
GRAND ART
EXHIBITION
OF BUSAN

2026년도 제52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작품공모

출품자격 | 국적제한 없이 접수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대학생은 연령에 관계없이 출품가능)

- ▶ 부 문: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서예, 학술·평론, 영상·설치,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 원 서 교 부: 2026. 6. 1.(월) ~ 당일 현장 접수시까지
▶ 원서교부처: (사)부산미술협회 사무국 또는 인터넷 교부 (<http://www.bfaa.or.kr>)

- ▶ 1차 작품사진 접수기간 및 시간, 장소 ※ 가접수는 불허함
2026. 10. 20.(화) ※ 이점과 달리 접수기간이 1일(하루)로 운영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학술·평론, 영상·설치, 수채화, 민화·불화
(접수장소 및 접수시간: 부산예술회관 4층 10:00 ~ 17:00)

- ▶ 2차 작품접수기간 및 시간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함)
2026. 8. 3.(월) 서예, 문인화
(접수장소 및 접수시간: 부산예술회관 4층 10:00 ~ 17:00)
2026. 11. 15.(월)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학술·평론, 영상·설치, 수채화, 민화·불화
(접수장소 및 접수시간: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10:00 ~ 17:00)

- ▶ 작품접수처
(디자인부문), (서예부문), (문인화부문), (학술·평론부문), (영상·설치)는 아래의 주소 참고
(사)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 (<http://www.bfaa.or.kr>) 협회소식란

- ▶ 출품수: 1인 2점 이내

- ▶ 접수비: 한국화, 서양화 (구상, 비구상 2점 출품시 각 6만원), 조각, 판화, 공예, 학술·평론, 영상·설치, 수채화, 민화·불화 (1점 6만원, 2점 10만원)
서예, 문인화 (1점 5만원, 2점 8만원), 디자인 (1점 2만 5천원, 2점 4만원)

- ▶ 시상내용

구분	분야	인원	내역
대상	한국화, 서양화(구상, 비구상), 판화, 조각, 수채화	1명	상금 1,000만원 및 상장(작품예입금 포함)
	공예	1명	상금 300만원 및 상장
	디자인	1명	상금 300만원 및 상장
	민화·불화	1명	상금 300만원 및 상장
	서예	1명	상금 500만원 및 상장(작품예입금 포함)
부산문화대상	문인화	1명	상금 500만원 및 상장(작품예입금 포함)
	회화 및 기타	2명	상금 300만원 및 상장(작품예입금 포함)
최우수상	학술·평론	1명	상금 100만원 및 상장
	영상·설치	1명	상금 100만원 및 상장
우수상	학부출품(1명)	10명	상금 100만원 및 상장
	학술·평론	1명	상금 50만원 및 상장
	영상·설치	1명	상금 50만원 및 상장
특별상	후원처 요청시		약간명
특선	작 분야별	약간명	상장
입선	수 분야별	약간명	상장

※ 시상금액에 따라 시상 및 수상 작품이 변동될 수 있음

- ▶ 수상작 전시기간 및 전시장소 2026. 11. 23.(월) ~ 12. 12.(토)

장소	분야	기간
부산문화회관	민화·불화, 조각, 공예	2026. 11. 24.(화) ~ 11. 28.(토)
	서양화(구상), 서양화(비구상)	2026. 12. 1.(일) ~ 12. 5.(목)
	서예	2026. 12. 8.(일) ~ 12. 12.(토)
부산시청 2층 전시실	한국화, 수채화, 판화	2026. 11. 23.(월) ~ 11. 28.(토)
	문인화	2026. 11. 30.(일) ~ 12. 5.(목)
	디자인,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전	2026. 12. 8.(일) ~ 12. 12.(토)

※ 시상금액에 따라 시상 및 수상 작품이 변동될 수 있음

- ▶ 작품반출기간 전시작품 종료 후 1일 이내 (10:00~12:00 이내)

- ▶ 문의처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사무국 051)632-2400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78(대천3동) 부산예술회관 4층 (사)부산미술협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www.bfaa.or.kr)에서 참조하십시오



주최 | BFAA (사)부산미술협회 | 주관 |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주최후원 | BNK 부산은행

주최후원 | 부산은행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문화재단

주최후원 | 부산은행 | 부산은행 | 부산은행 | 부산은행 | 부산은행 | 부산은행 | 부산은행 | 부산은행 | 부산은행